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이호영 Lee Ho-Young

한글재민체연구회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ISBN 979-11-980056-3-2(PDF)

비매품/무료



한글재민체연구회 이호영 지음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이호영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지은이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이호영 Lee Ho-Young

1985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학사)

1987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석사)

1990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음성언어학과 졸업(음성학 박사)

1991~2000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99, 2007, 2014 미국 UCLA 방문 교수

2000~현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KBS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음성학회 회장, 서울대 언어AI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언어교육원 원장 등 역임

주요 저서

국어음성학(1996), 국어운율론(1997), 바하사찌아찌아1(2009),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2009), 코꼬 카리(2012), 짜라아예(2012), 카리 뿌라이마리(2013), 딸라아예앙아 짜라아예(2013)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이호영 지음

머리말

2022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이신 박재갑 교수님의 초청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던 한글재민체 전시회에 갔다. 한글재민체는 1908년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근대식 국립병원인 '대한의원'의 개원일에 공표한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담긴 서체를 기반으로 하여 박재갑 교수님과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민 교수님이 만든 디지털 폰트인데, 매우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서체의 폰트였다.

필자는 한글이 한국인의 문자에서 세계인의 문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글 풀어쓰기 폰트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 우리가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음절 구조가 한국어와 달라 모아쓰기로 표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글을 이용해 문자 없는 언어의 표기 체계를 만들 때도 풀어쓰기가 더 적합할 때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은 모아쓰기를 염두에 두고 창제되었기 때문에 풀어쓰기를 할 경우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한글재민체를 보고 나서 김민 교수님이라면 아름다운 한글 풀어쓰기 폰트를 개발해 주실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박재갑 교수님께 한글재민체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려면 풀어쓰기 폰트도 함께 개발해서 보급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 날 박재갑 교수님이 김민 교수님과 상의해 흔쾌히 한글 풀어쓰기 폰트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셨다. 이후 한글재민체연구회가 창설되어 한글 풀어쓰기 폰트 개발이 시작되었고, 폰트 디자인 전문 기업인 윤디자인 그룹이 공동 개발자로서 폰트 개발에 함께 참여했다.

한글 풀어쓰기 폰트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박재갑 교수님께서 한글 풀어쓰기 폰트의 효용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다.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뛰어난 한글을 가지고도 영어의 /f, v/와 같은 발음도 표기하지 못하나는 불만을 토로해 왔고, 영어 발음을 한글 기호를 이용해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글을 이용한 영어 발음 교재를 먼저 만들기로 했다.

필자는 최고의 영어 음성학 교육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이현복 선생님께 영어 음성학을 배웠고, 현대 음성학의 발상지인 영국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음성언어학과에서 존 웰즈 선생님께 박사학위 지도를 받으면서 영어 음성학을 배웠다. 웰즈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루었다. 두 분의 은사님들 외에도 런던대학교에서 필자에게 영어 음성학을 가르쳐 주신 마이클 애쉬비, 질 하우스, 존 메이드먼트, 존 볼드윈, 제프 린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필자가 영어 원어민이 아닌 데다 영국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 영어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 책임이다.

영어 발음 안내서는 필자가 학생 시절 영어 음성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집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책이다. 교수가 되고 나서 차일피일 집필을 미루다 한글 풀어쓰기 폰트 개발을 계기로 이제야 집필을 마치게 되었다. 정년퇴임 전에 필자의 학문적인 숙제 중 하나를 완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책의 편집은 수원여대 시각디자인과 김미애 교수께서 맡아 주셨다. 음성학 책에는 많은 발음 기호와 그림이 들어가 편집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작업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김미애 교수님은 김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폰트 개발 실무 작업도 진행해 주셨다. 김미애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독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예문의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한글재민체연구회 홈페이지에 작업해 주신 이규선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한글 풀어쓰기 폰트 개발과 이 책의 출판을 진두지휘해 주신 박재갑 교수님과 김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풀어쓰기 폰트와 입력 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해 주신 윤디자인 그룹 편석훈 회장님과 한도희 전무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대신송춘문화재단과 재단법인 고산장학회에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영어 발음을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한글 풀어쓰기 폰트가 새로운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데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

2023년 10월 9일

이 호 영

차례

제1장 개관

1. 발음 학습은 필요한가?	8
2. 발음 문제는 왜 생겨나는가?	10
3. 발음 교정은 가능한가?	13
4. 영어 발음 기호	14
5. 한글 발음 기호	16
6. 조음 기관	18
7. 미국 영어? 영국 영어?	20

제2장 영어의 자음

1. 영어 자음의 분류	22
1.1. 조음 방법에 의한 분류	22
1.2. 조음 자리에 의한 분류	23
1.3. 성대의 진동 유무	24
2. 영어의 자음 체계	25
3.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자음 범주화	26
4. 영어의 파열음	27
5. 영어의 마찰음	31
6. 영어의 파찰음	35
7. 영어의 유음	37
8. 영어의 비음	40
9. 영어의 반모음	42

제3장 영어의 모음

1. 영어 모음의 분류	44
2.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모음 범주화	46
3. 영어의 단순 모음	47
3.1. /i:/와 /I/	47
3.2. /u:/와 /U/	48
3.3. /ε/와 /æ/	50
3.4. /ə/와 /ʌ/	51
3.5. /ɑ:/와 /ɔ:/	52
4. 영어의 이중 모음	55
5. r-음색 모음	56
6. 무성 자음 앞 단모음화	57

제4장 영어 단어와 문장의 발음

1. 자음군의 발음	60
1.1. 어두에 나오는 자음군	60
1.2. 어말에 나오는 자음군	61
1.3. 어중에 나오는 자음군	62
2. 강형과 약형	63
2.1. 관사	65
2.2. 대명사	66
2.3. Be 동사와 조동사	67
2.4. 전치사	68
2.5. 기타	68
2.6. 문법어가 강형으로 발음될 때	70
3. 축약형	71
4. 단어의 연결	73
4.1. 자음 탈락	73
4.2. 자음 동화	74
4.3. 융합	75

제5장 영어의 강세

1. 단어 강세	76
2. 복합어와 구의 강세	80
3. 문장 강세	82
4. 영어의 리듬	85

제6장 영어의 억양

1. 억양이란?	90
2. 영어의 억양 구조	90
3. 억양구 경계의 부과	95
4. 초점과 억양	97
5. 예외적인 핵 악센트 부과	100
5.1. 문미 호격	100
5.2. 사건 문장	100
5.3. 문미의 시간과 장소 부사어	101
5.4. 문두 wh-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목적어	101
5.5. 구 동사 안에 삽입된 명사 목적어	101
5.6. 특정 관용 표현	102
6. 핵 억양의 부과	103

제1장 개관

1. 발음 학습은 필요한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영어 발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박미경·손선아(2015)가 충청남도 한 사립대학의 간호학과, 기계자동차학부, 소방방재학과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영어 발음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16%에 불과했고, 44%의 학생은 만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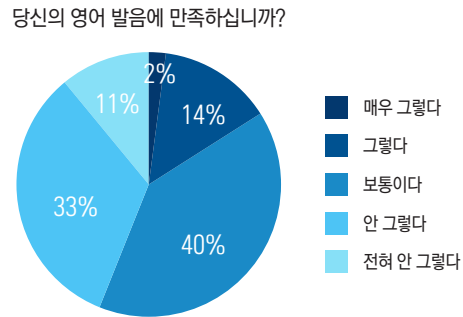


그림 1-1. 대학생들의 영어 발음 만족도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어 교육의 목표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당시 발음 교육은 영어 교육의 ‘신데렐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어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영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발음 교육은 차차 영어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났고, 심지어는 무시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문법과 독해 중심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 발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2년 제6차 교육과정(1992)이 도입된 이후 듣기와 말하기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발음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도록 교육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 목표를 낮추면 학생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구사는 현실적인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나는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가?”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없을까?”라는 질문이다.

대한민국 영어 교사들의 영어 구사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받으며, 과거에 비해 영어 발음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와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발음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영어 발음이 부정확한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며, 박미경·손선아(2015)에 따르면 76%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영어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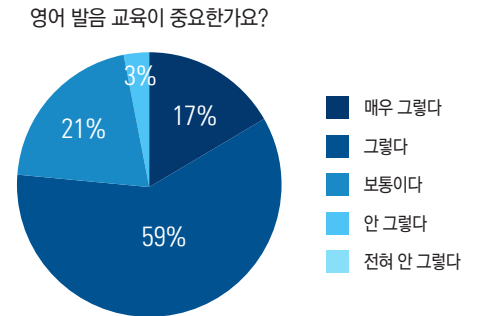


그림 1-2. 대학생들이 느끼는 영어 발음 교육의 중요성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구사를 원하는지도 박미경·손선아(2015)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놀랍게도 거의 절반(47%)의 학생들이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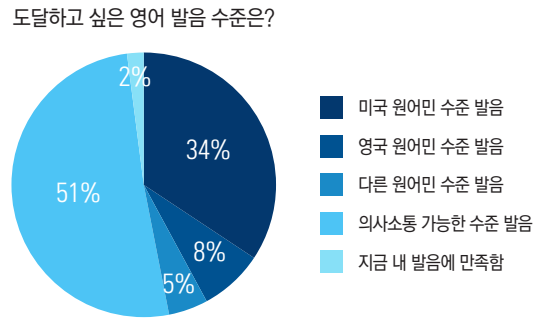


그림 1-3. 대학생들이 도달하고 싶은 영어 발음 수준

조사에 응한 학생들이 모두 이공계 학생임에도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을 구사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를 원하는 학생들도 51%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학습 부담을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 욕구도 채워줘야 한다.

2. 발음 문제는 왜 생겨나는가?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은 더 나은 영어 발음을 구사하길 원하는 데,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영어 발음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영어 모음을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 1-4>에서 보듯이 미국 영어에는 10개의 단순 모음이 존재한다. /ɔ:/와 /ɑ:/가 구분되지 않는 방언도 있는데, 이 방언에는 9개의 모음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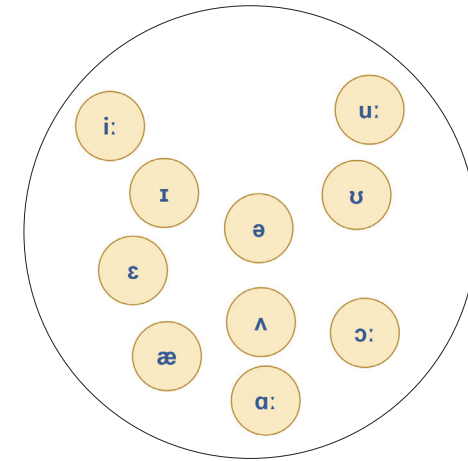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인의 영어 모음 공간

반면에 서울 중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에는 <그림 1-5>에서 보듯이 7개의 모음이 존재한다.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ㅈ/와 /ㅊ/의 합류가 일어나 이 두 모음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ㅡ/와 /ㅣ/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상 방언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방언에는 6개의 모음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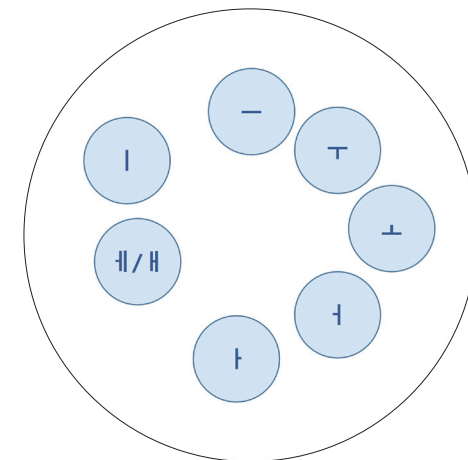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인의 한국어 모음 공간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한국어와 영어 모음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우리가 영어의 발음을 선천적으로 잘 구별해서 듣고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발음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모음 공간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Best 1995 참조) 외국어 모음의 지각과 발음에서 문제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림 1-5>와 같은 모어 모음 공간이 이미 존재하는데, 영어를 배우면서 이 모음 공간 안에 영어 모음들을 구겨 넣게 된다. 이때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모음들을 듣고 각각의 영어 모음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모음으로 범주화해서 지각하게 되고, 그 결과 두 개의 영어 모음이 하나의 한국어 모음으로 범주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영어 모음을 청취하고 발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pet [pet]'과 'pat [pæt]'은 서로 다른 모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의 귀에는 이 두 소리가 모두 한국어의 /ㅐ/처럼 지각되어 /ㅐ/ 하나로 범주화되며, 이로 인해 두 영어 모음을 /ㅐ/ 음가로 발음하게 된다. <그림 1-6>은 영어 모음 다섯 쌍이 한국어의 다섯 모음으로 범주화(혹은 동화)된 모음 영역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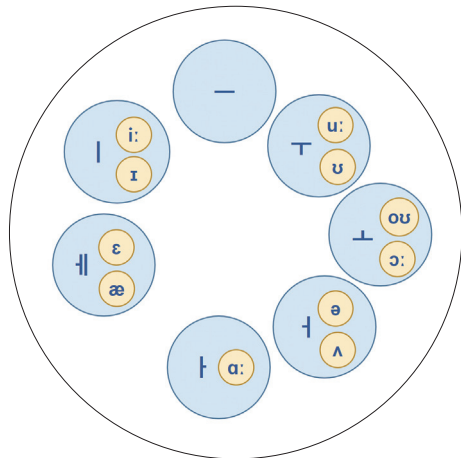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모음 공간

3. 발음 교정은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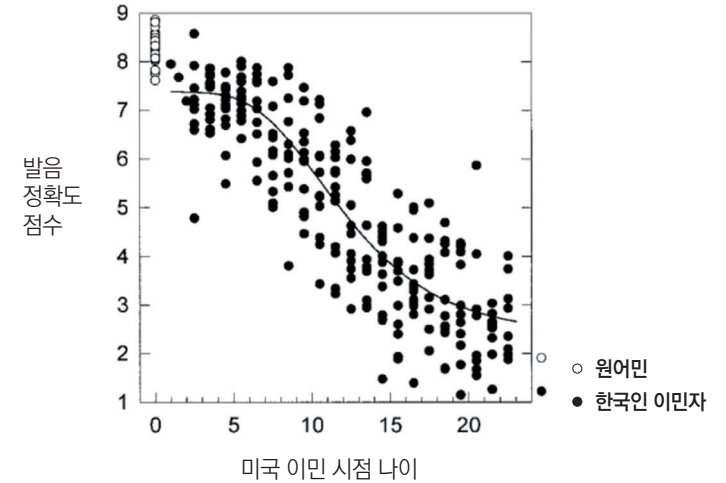


그림 1-7. 미국 이민 시점 나이와 발음 정확도

많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을 구사하길 원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한국인 미국 이민자의 이민 나이가 어릴수록 영어 발음이 원어민에 더 가깝고, 이민 나이가 늦어질수록 영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Flege 외 1999 참조).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랜 기간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영어를 국내에서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더군다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발음 교육을 통해 영어 발음을 원어민 수준으로, 안 되면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그렇다.”이다. 필자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영국의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음성언어학과에서 영어 음성학을 배우면서 필자의 발음을 교정한 경험이 있고,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로 재직하면서 많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짧은 시간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영어 발음 교정에는 학습자의 동기와 재능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동기와 재능이 뛰어난 학습자는 빠른 시간 안에 영어 발음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동기와 재능이 뛰어난 학습자가 특별한 음성 훈련 없이도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영어 발음을 높은 수준까지 향상시킨 사례도 여럿 보았다. 동기와 재능이 뛰어난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 목표를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에 두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의 영어 구사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영어 사용 국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식 영어 발음을 구사한다.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으면 영어로 의사 표현할 때 머뭇거리게 되고, 외국인과 사귀는 것도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능력을 저평가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영어 발음 학습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책을 지침서로 해서 꾸준히 연습하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4. 영어 발음 기호

모든 언어의 발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철자를 바꾸면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발음 변화를 철자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철자와 현실 발음의 괴리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 영어의 후설 고모음 /u:/는 여섯 가지 다른 철자로 표기되며(예: to, two, too, through, threw, clue, shoe), 철자 'a'는 6개의 다른 모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된다(dame, dad, father, call, village, many). 이와 같은 철자와 발음의 괴리로 인해 원어민조차 인명이나 지명의 발음을 몰라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는 사람에게 질문해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어린이들이 철

자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당연히 영어의 철자와 발음을 배울 때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발음 기호(phonetic alphabet)는 철자와 다른 현실 발음을 기록하기 위해 고안된 기호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발음 기호는 **국제음성학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에서 만든 **국제음성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이다. 다음의 <표 1-1>과 <표 1-2>는 영어의 자음과 모음 발음 기호를 각각 보여준다.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학습하려면 발음 기호를 배워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마다 사전에서 발음을 확인하고 익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표 1-1. 영어의 자음 발음 기호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p]	pen	[t]	ten	[k]	king
[b]	boy	[d]	day	[g]	game
[tʃ]	chain	[f]	fine	[θ]	think
[dʒ]	jean	[v]	van	[ð]	they
[s]	sun	[ʃ]	shine	[h]	high
[z]	zoo	[ʒ]	pleasure	[l]	line
[r]	rain	[j]	yes	[w]	way
[m]	mouth	[n]	name	[ŋ]	sing

표 1-2. 영어의 모음 발음 기호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i:]	bean			[u:]	food
[ɪ]	bin	[ə]	about cut	[ʊ]	book
[ɛ]	pen	[ʌ]		[ɔ:]	law
[æ]	pan	[ɑ:]	father		

5. 한글 발음 기호

영어 발음 기호는 로마자와 유럽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 발음 기호는 음가를 배우기 전에는 어떤 발음을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을 보고 단어의 뜻을 확인하더라도 발음 기호를 몰라 발음은 확인하지 않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 기호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각 영어 발음 기호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 기호를 배정해서 영어 음가를 기술할 것이다. 한글은 탁월한 음성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을 이용해 영어 발음을 표기하면 영어의 음가를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고, 영어 발음 기호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한글 재민체연구회**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글 풀어쓰기 폰트(김미애·김민 2023)를 이용해 영어 발음을 표기할 것이다. **한글 풀어쓰기 폰트**는 음절 구조가 복잡한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데, 발음 기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표 1-3. 영어의 자음 발음 기호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p]	ㅍ	[t]	ㅌ	[k]	ㅋ
[b]	ㅂ	[d]	ㄸ	[g]	ㄱ
[f]	ㅍ	[f]	ㅍ	[θ]	ㅌ
[dʒ]	ㅈ	[v]	브	[ð]	ㄸ
[s]	ㅅ	[ʃ]	ㅅ	[h]	ㅎ
[z]	ㄷ	[ʒ]	ㅅ	[l]	ㄹ
[r]	ㄹ	[j]	ㅇ	[w]	ㅍ
[m]	ㅁ	[n]	ㄴ	[ŋ]	ㅇ

<표 1-3>은 각 영어 자음 발음 기호에 대응하는 한글 자음 기호를 보여 준다. 한글 자음 기호들 중에서 영어의 유성 마찰음 [z]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 기호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었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반치음 [Δ]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반치음의 음가는 영어의 [z]과 비슷한 유성 마찰음이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반치음과 함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비읍 순경음 [뵤]의 비읍 아래에 적힌 빈 방울은 마찰음을 표기했던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책에서 [뵤]는 영어 유성 순치 마찰음 [v]를 표기하는 데 사용한다. 빈 방울을 마찰음 보조 기호로 보고 [f, θ, ð]도 가장 가까운 조음 자리에서 조음되는 파열음에 빈 방울을 아래에 붙여 [ㅍ, ㅌ, ㄸ]로 표기했다. 영어의 [ʃ, ʒ]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 기호에 사용된 찬 방울(검은 동그라미)은 함께 표기된 한글과 인접한 조음 자리에서 조음됨을 나타내 주는 기호로 사용했다. 옛이음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연구개 비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가 사라졌는데, 이 책에서는 영어의 연구개 비음 [ŋ]을 표기하기 위해 되살렸다. 그리고 한 개의 겹자음 [ㅍ]과 두 개의 겹모음 [ㅇ, ㅍ]가 사용되었다. 영어의 [l]에 대응하는 겹자음 [ㅍ]는 한국어에서 모음 사이에 두 개의 ‘ㄹ’이 나올 때 발음되는 설측음과 매우 유사하여 사용하였다. 영어의 ‘w’는 ‘겹 u(double u)’라고 부르는데, 조음적으로 모음 [u:]와 유사한 음가로 짧게 발음되어 모음 [ㅍ]를 겹친 [ㅍ]로 표기했고, 영어의 [j]도 모음 [i:]와 유사한 음가로 짧게 발음되어 모음 [ㅇ]을 겹친 [ㅇ]로 표기했다.

표 1-4. 영어의 모음 발음 기호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발음 기호	예
[i:]	ㅣ:			[u:]	ㅍ:
[ɪ]	ㅣ	[ə]	·	[ʊ]	ㅍ
[ɛ]	ㅌ	[Δ]	Δ	[ɔ:]	ㅌ:
[æ]	ㅌ	[ɑ:]	ㅌ:		

<표 1-4>는 영어 모음 발음 기호들과 이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 기호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는 영어의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해 영어 발음 표기에서 사용되는 장음 기호 ‘:’를 그대로 사용했다. 영어의 전설 중고모음 [ɪ]는 한국어의 모음 /ㅣ/보다 혀를 조금 더 내려 발음하기 때문에

/l/ 아래에 빈 방울을 붙인 기호를 사용했다. 영어의 [ɛ]와 [æ]는 각각 [ㅐ]와 [ㅓ]로 표기했다. [ㅐ]와 [ㅓ]는 원래 음가가 달랐는데, 이 두 소리가 하나로 합류해 이제는 일부 중장년층을 제외하고는 구별하지 못한다. 영어에서는 [ɛ]와 [æ]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ㅐ]와 [ㅓ]로 구별해서 표기했다. 영어의 중앙 모음 [ə]는 아래 아 [ㅏ]로 표기하였고, [ʌ]는 중앙 모음 [ə]보다 혀를 조금 내려 발음하는 중설 모음이라 [ㅓ]로 표기했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ɔ:]를 [ㅓ]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이 모음이 한국어의 [ㅓ]와 매우 유사한 음가를 가진 장모음이라서 [ㅓ:]로 표기했다. 영어의 [u]는 한국어 [ㅜ]와 [ㅠ]의 중간 소리라는 의미로 이 두 모음을 겹친 [ㅜㅠ]로 표기했다.

6. 조음 기관

이 책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기술하게 되는데, 조음 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기술된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발음에 사용되는 조음 기관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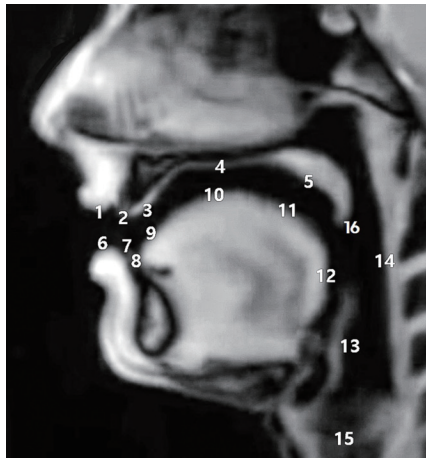


그림 1-8. 조음 기관 단면도

- | | |
|---------|---------|
| 1. 윗입술 | 9. 혀날 |
| 2. 윗니 | 10. 전설 |
| 3. 치조 | 11. 후설 |
| 4. 경구개 | 12. 혀뿌리 |
| 5. 연구개 | 13. 후두개 |
| 6. 아랫입술 | 14. 인두벽 |
| 7. 아랫니 | 15. 성대 |
| 8. 혀끝 | 16. 목젓 |

<그림 1-8>¹⁾에서 보듯이 구강의 위쪽에는 윗입술, 윗니, 치조(윗잇몸), 경구개(센입천장), 연구개(여린입천장), 목젓이 자리잡고 있다. 윗니 뒤쪽에 볼록 튀어나온 단단한 부분을 치조라 하고, 치조 뒤의 단단하고 평평한 부분을 경구개라 한다. 경구개 부위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입천장에 연골이 있기 때문이다. 경구개 뒤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구개라 하며, 목젓은 연구개의 뒷부분에 달려 있다.

혀도 혀끝, 혀날, 혀몸, 혀뿌리로 나뉜다. 혀의 맨 끝부분을 혀끝이라 하고, 혀끝과 혀몸 사이의 좁은 부위를 혀날이라 한다. 혀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전설이라 하고 뒷부분은 후설이라 한다. 그리고 혀몸 뒤쪽, 인두벽 앞에 위치하는 혀의 부위를 혀뿌리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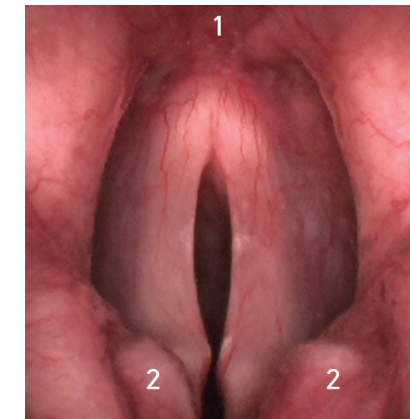


그림 1-9. 성대

<그림 1-9>²⁾에서 보듯이 성대는 목에 있는 갑상 연골에 붙어 있는 길쭉한 한 쌍의 근육으로 뒤쪽 끝부분은 피열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에 연결되어 있다. 갑상 연골은 성대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피열 연골은 성대를 여닫는 데 관여한다. 성대 사이의 틈을 성문(glottis)이라 한다.

1) <https://www.youtube.com/shorts/lhziyplYT94>

2) 이 그림은 2000년대 초반 Kay Elemetrics사에서 데모용으로 보내준 성대 진동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이다.

7.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그림 1-3>에서 보듯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국 영어보다는 미국 영어를 선호한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영국과의 관계보다 더 깊고, 미국 영어로 된 학습 자료와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영어를 선호하는 한국인 학습자도 제법 존재한다. 국제 행사에서는 미국 영어보다는 영국 영어에 가까운 영어를 더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영국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미국 영어든 영국 영어든 학습자 본인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미국 영어에만 노출되면 영국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호주 영어, 뉴질랜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말을 할 때는 미국 영어로 하더라도 미국인 이외의 영어 원어민들, 다른 외국인들과도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영어를 많이 접해야 한다.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운 한국인 학습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영어든 영국 영어든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미국 영어에 영국식 발음이 포함되거나 영국 영어에 미국식 발음이 포함된다. 여기에 한국식 발음도 포함된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길 원하는 학습자는 미국 영어든 영국 영어든 하나를 선택해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 구사를 원하는 학습자들은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한국식 영어가 혼합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두루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국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책에서는 미국 영어 발음을 원어민처럼 구사하길 원하는 학습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골라서 설명할 것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발음을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발음 조언도 필요할 때마다 언급할 것이다.

제2장 영어의 자음

1. 영어 자음의 분류

영어의 자음은 크게 **조음 방법**(manner of articulation), **조음 자리**(place of articulation), **성대의 진동**(vocal fold vibration) 유무에 따라 분류한다.

1.1. 조음 방법에 의한 분류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plosive), **마찰음**(fricative), **파찰음**(affricate), **유음**(liquid), **비음**(nasal), **반모음**(semi-vowel)으로 나눈다.

파열음은 두 조음 기관을 접촉시켜 구강 안에 막음을 형성했다가 개방하면서 내는 소리로 영어에는 6개의 파열음 /p, b, t, d, k, g/가 있다.

마찰음은 두 조음 기관을 닿지 않을 정도로 바짝 접근시켜 내는 소리로 영어에는 9개의 마찰음 /f, v, θ, ð, s, z, ʃ, ʒ, h/가 있다. 기류가 좁은 틈 사이로 통과할 때 마찰 소음이 생겨난다.

파찰음은 두 조음 기관을 접촉시켜 막음을 형성했다가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조금만 개방해서 두 조음 기관의 좁은 틈 사이로 기류를 통과시켜 내는 소리로 영어에는 2개의 파찰음 /tʃ, dʒ/가 있다.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연결체라고 볼 수 있다.

유음(流音)은 청각적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소리를 말한다. 영어에는 2개의 유음 /r, l/이 있다.

비음은 구강 안에서 막음을 형성한 채 연구개를 내려 비강으로 기류를 통과시켜 내는 소리로 영어에는 3개의 비음 /m, n, ŋ/이 있다.

반모음은 마찰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혀를 입천장에 접근시켜 내는 소리이다. 영어에는 2개의 반모음 /j, w/이 있다. 반모음은 조음적인 측면에서는 모음처럼 발음되지만 자음의 자리, 즉 모음 앞에서만 나타나므로 자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1.2. 조음 자리에 의한 분류

자음을 조음할 때 조음 기관의 막음이나 좁힘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조음점**(point of articulation), 또는 **조음 자리**라 한다. 영어의 자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bilabial sound), **순치음**(labiodental sound), **치음**(dental sound), **치조음**(alveolar sound), **후치조음**(postalveolar sound), **경구개치조음**(palato-alveolar sound), **경구개음**(palatal sound), **연구개음**(velar sound), **성문음**(glottal sound)으로 나눈다.

양순음은 두 입술의 막음이나 접근을 수반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파열음 /p, b/, 비음 /m/, 그리고 반모음 /w/가 있다.

순치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발음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마찰음 /f, v/가 있다.

치음은 혀끝을 윗니 뒤에 살짝 대고 발음하거나 이 사이에 대고 발음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마찰음 /θ, ð/가 있다.

치조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거나 접근시켜 발음하는 소리이다. 영어에는 파열음 /t, d/, 마찰음 /s, z/, 유음 /l/, 비음 /n/이 있다.

후치조음은 혀끝이나 혃날을 윗잇몸 뒷쪽으로 올려 발음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유음 /r/이 있다.

경구개치조음은 혀끝과 혃날을 윗잇몸과 경구개 앞쪽의 넓은 부위에 대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로 영어에는 파찰음 /tʃ, dʒ/와 마찰음 /ʃ, ʒ/가 있다.

경구개음은 전설을 경구개에 접근시켜 조음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반모음 /j/가 있다.

연구개음은 후설을 연구개에 대거나 접근시켜 조음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파열음 /k, g/, 비음 /ŋ/, 반모음 /w/가 있다. /w/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후설을 연구개에 접근시켜 발음하는 소리라서 두 개의 조음 자리를 갖는다.

성문음은 성대의 막음이나 성문에서의 마찰을 수반하는 소리로 영어에는 마찰음 /h/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에 영어의 비음 /m, n, ŋ/과 반모음 /j, w/는 한국어에 매우 유사한 소리들이 있어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자음 범주화

다음의 <표 2-2>에서 첫 번째 칸은 영어 자음 음소들이 들어간 영어 단어들을 보여 주고, 두 번째 칸은 영어 자음 음소들을 영어 발음 기호와 한글 발음 기호로 표기한 것을 보여 주며, 세 번째 칸은 각각의 영어 자음 음소가 어떤 한국어 자음으로 범주화되는지를 보여 준다.

표 2-2. 한국인 학습자들의 전형적인 영어 자음 범주화

단어 예시	영어 자음 음소		범주화된 한국어 자음
	영어 기호	한글 기호	
pen, ten, key	p, t, k	ㅍ, ㅌ, ㅋ	ㅍ, ㅌ, ㅋ
boy, day, girl	b, d, g	ㅂ, ㄷ, ㄱ	ㅂ, ㄷ, ㄱ
chain, jane	tʃ, dʒ	ㅊ, ㅈ	ㅊ, ㅈ
fine	f	ㅍ	ㅍ, ㅎ(후)
vine	v	빙	ㅂ
think	θ	ㅌ	ㅌ, ㅍ
this	ð	ㄷ	ㄷ
sun	s	ㅅ	ㅅ, ㅌ
zoo	z	ㅈ	ㅈ
shoe	ʃ	ㅅ	ㅅ(시/쉬)
pleasure	ʒ	ㅈ	ㅈ
high	h	ㅎ	ㅎ
rain, lane	r, l	ㄹ, ㄴ	ㄹ
man, nine, sing	m, n, ŋ	ㅁ, ㄴ, ㅇ	ㅁ, ㄴ, ㅇ
yes, we	j, w	ㅇ, ㅍ	j, w

4. 영어의 파열음

파열음은 두 조음 기관을 붙여 구강 막음을 형성했다가 막음을 개방 하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파열음은 보통 두 조음 기관이 조음점을 향해 접근(approach)하는 단계, 두 조음 기관을 붙여 구강 막음(closure)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하는 단계, 두 조음 기관의 막음을 개방(release)하는 단계 등 세 단계로 조음된다.

영어에는 양순음 /p, b/, 치조음 /t, d/, 그리고 연구개음 /k, g/ 등 6개의 파열음이 있다. 영어의 /p, t, k/는 구강 막음의 개방 후 구강에 압축되어 있던 기류가 급속도로 입 밖으로 탈출하면서 한국어 /ㅎ/과 같은 마찰 소리를 수반하는데, 이 강한 마찰 기류를 기(aspiration)라고 한다. 영어의 /p, t, k/는 강한 기를 수반하는 유기음(aspirated sound)이라 한다. 반면에 /b, d, g/는 기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음(unaspirated sound)이다.

기의 유무는 입 앞에 종이를 대고 자음을 발음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어의 'pen, ten, key'를 발음할 때 입 앞에 종이를 대고 있으면 첫 자음의 강한 기로 인해 종이가 크게 흔들린다. 반면에 /b, d, g/는 기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bean, dean, gang'을 발음할 때 입 앞의 종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영어의 /p, t, k/는 강세 모음 앞에서는 강한 기를 수반하지만 /s/ 뒤나 비강세 모음 앞에서는 기를 수반하지 않아 한국어의 /ㅍ, ㅌ, ㅋ/처럼 무기음으로 발음된다(예: pen[^hp^hɛn]/[^h피에니], spam[^hspæm]/[^h스팸], paper[^hp^heɪpər]/[^h피이퍼리]).

영어의 /p, t, k/는 막음 단계에서 성대 진동을 수반하지 않는 무성음(voiceless sound)이고, 조음 시 조음 기관을 긴장시켜 발음하는 경음(fortis)이다. /b, d, g/는 성대의 진동을 수반하는 유성음(voiced sound)인데, 어두와 어말에서는 많은 원어민들이 무성음으로 발음한다. /b, d, g/는 조음 기관을 긴장시키지 않고 발음하는 연음(leni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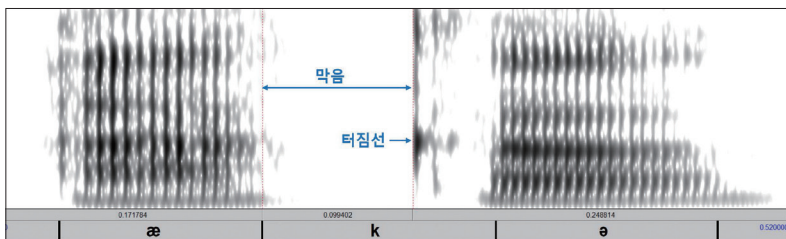


그림 2-1. /aka/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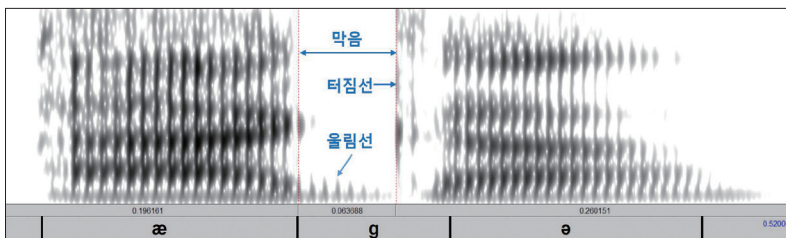


그림 2-2. /aga/의 스펙트로그램

위의 <그림 2-1>과 <그림 2-2>를 비교해 보면 /k/가 /g/보다 막음 구간이 긴 것을 볼 수 있으며, /g/는 유성음이라 막음 구간에서 성대의 진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울림선(voice bar)이 보이지만 /k/는 무성음이라 울림선이 보이지 않는다. 막음 구간의 길이는 조음 기관의 긴장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제보자가 /aka/와 /aga/ 모두 첫음절에 강세를 부과해서 발음했기 때문에 /k/의 기는 강제 모음과 비강제 모음 사이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양순음 /p, b/는 연구개를 올려 비강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두 입술로 막음을 형성하고 막음을 지속하다가 개방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그림 2-3>의 MRI 단면도¹⁾를 보면 연구개가 올라가 인두벽에 닿아 있는 것과 두 입술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림 2-4>의 입모양 그림²⁾에

1) 이 장과 제3장에 나오는 MRI 단면도는 따로 인용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USC의 span(언어 산출 및 조음 지식 집단, speech production and articulation knowledge group)에서 공개한 'the rMRI IPA chart'에서 캡처한 것이다(https://sail.usc.edu/span/rtmri_ipa).

2) 이 장과 제3장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입 모양 그림들은 모두 유튜브 채널 'San Diego Voice and Accent'에서 캡처한 사진을 소프트웨어로 그대로 본떠 그려 만든 것이다.

서는 두 입술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 /p, b/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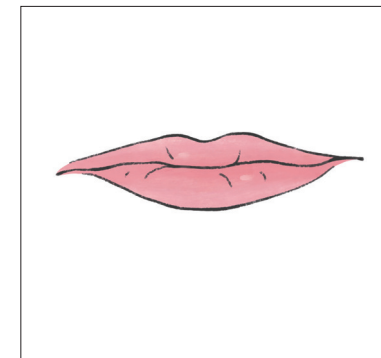


그림 2-4. /p, b/의 입술 모양

치조음 /t, d/는 연구개를 올려 비강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막음을 형성한 다음 막음을 지속하다가 개방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t, c/은 혀끝을 아랫니에 대고 혀날을 윗잇몸에 대고 발음하거나 혀끝을 윗니에 대고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어는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발음한다. /t, d/를 조음할 때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기 때문에 <그림 2-6>에서 혀의 아랫부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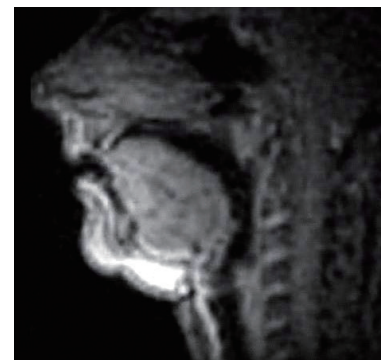


그림 2-5. /t, d/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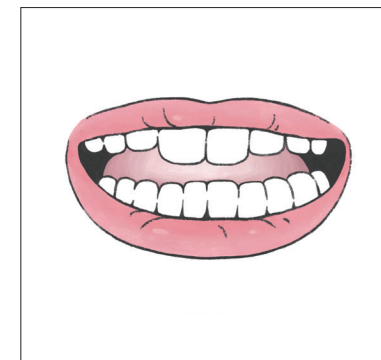


그림 2-6. /t, d/의 입 모양

/t, d/는 강세 모음과 비강세 모음 사이에서 혀끝으로 윗잇몸을 한 번 튕기면서 발음하는 탄설음 [ɾ]로 실현되며, 탄설음 [ɾ]는 한글로는 [ㄹ]로 표기한다(예: better [bɛɾər]/[베레ㄹ리], daddy [dæɾi]/[대레ㄹ이]). 이 현상을 **탄설음화(flapping)**라고 하는데, 탄설음화로 인해 강세 모음과 비강세 모음 사이에서 /t, d/가 중화되어 'writer'와 'rider'가 [raɪɾər]/[라이ㄹ레ㄹ리]로 발음되어 동음어가 된다. 일부 미국인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탄설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t, d/는 성절 설측음 [l]³⁾ 앞에서도 탄설음화되며(예: little [lɪɾl]/[피ㄹ레ㄹ피], middle [mɪɾl]/[미ㄹ레ㄹ피]), 이에 따라 /t, d/의 중화가 일어나 'petal'과 'pedal'이 [pɛɾl]/[피레ㄹ피]로 발음되어 동음어가 된다.

/t/는 성절 비음 [ŋ] 앞에서 종종 성문 파열음 [ʔ]로 발음되며, 성문 파열음은 한글로는 [ㅎ]로 표기한다(예: cotton [kɑːʔŋ]/[카:ㅎㄴ], certain [sɜrʔŋ]/[머:레ㅎㄴ]).

탄설음화와 성문 파열음화는 모든 미국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아니므로 탄설음과 성문 파열음을 발음하기를 꺼리는 학습자들은 그냥 /t, d/를 발음하면 된다.

연구개음 /k, g/는 연구개를 올려 비강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후설을 연구개에 대고 막음을 형성한 다음 막음을 지속하다가 개방하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그림 2-7>과 <그림 2-8>에서 보듯이 연구개음을 내기 위해 막음을 형성할 때는 혀끝이 아랫니 뒷쪽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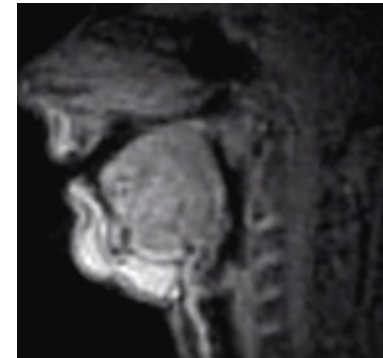


그림 2-7. /k, g/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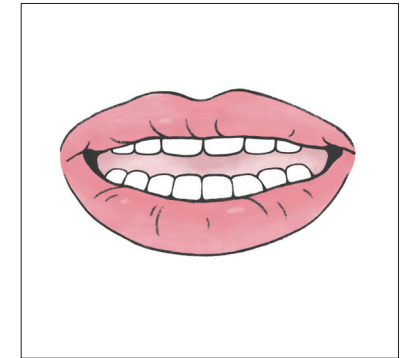


그림 2-8. /k, g/의 입 모양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p, t, k/를 한국어의 /ㅍ, ㅌ, ㅋ/로 범주화시키는데, 한국어의 /ㅍ, ㅌ, ㅋ/는 영어의 /p, t, k/보다 기가 조금 더 세지만 음성적으로 매우 유사하므로 한국어의 /ㅍ, ㅌ, ㅋ/로 발음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어의 /b, d, g/는 연음이라 한국어의 /ㅂ, ㄸ, ㄱ/로 범주화시키는데, /ㅂ, ㄸ, ㄱ/는 무성음일 뿐만 아니라 어두에서 약한 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를 없애거나 더 약화시켜 발음하지 않으면 원어민들 귀에는 /p, t, k/로 들려 잠시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발음해야 한다.

5. 영어의 마찰음

마찰음은 두 조음 기관을 접근시켜 생긴 좁은 틈으로 기류를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두 조음 기관 사이의 좁은 틈으로 기류가 통과할 때 난기류가 형성돼 마찰 소음이 발생한다. 영어에는 순치음 /f, v/, 치음 /θ, ð/, 치조음 /s, z/, 경구개치조음 /ʃ, ʒ/, 성문음 /h/ 등 모두 9개의 마찰음이 있다.

순치음 /f, v/는 연구개를 올려 비강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윗니와 아랫입술 사이로 기류를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f, v/를 /ㅍ, ㅂ/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3) 선행 모음이 탈락해 음절 핵 역할을 수행하는 설측음이나 비음을 성절 자음(syllabic consonant)이라 하고, 구별부호 '를 자음 아래에 붙여 표기한다(예: [l, ŋ]/[ㄹ, ㄴ]).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발음하는지는 거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쉽게 교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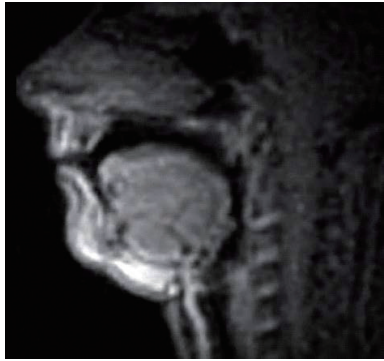


그림 2-9. /f, v/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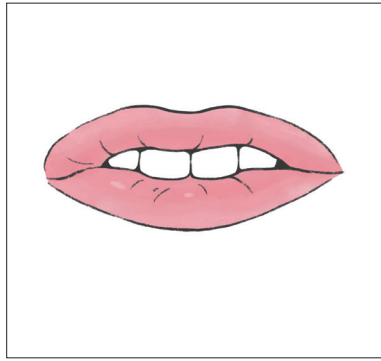


그림 2-10. /f, v/의 입 모양

치음 /θ, ð/는 연구개를 올려 비강을 차단한 상태에서 혀끝을 윗니 뒤쪽에 살짝 대고 혀끝과 윗니 뒤쪽 사이의 틈으로 기류를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θ, ð/는 혀끝을 이 사이에 넣고 혀끝과 이 사이의 좁은 틈으로 기류를 통과시켜 내기도 한다. <그림 2-12>는 혀끝을 이 사이에 넣고 발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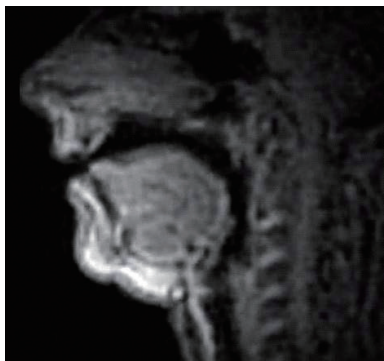


그림 2-11. /θ, ð/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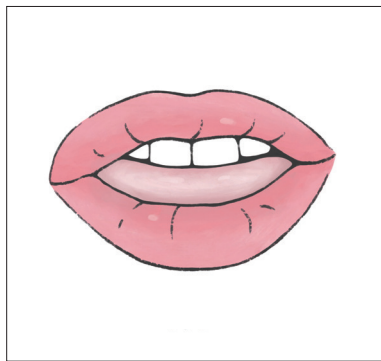


그림 2-12. /θ, ð/의 입 모양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θ/를 한국어의 /ㅍ/나 /ㅌ/로 범주화하고 /ð/를 /ㄷ/로 범주화해서 발음하는데, 이 사이에 혀를 살짝 내놓고 발음하는지는 거울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교정할 수 있다. /ð/는 빈도수도 낮고, 기능 부담량도 낮으므로 한국어의 /ㄷ/로 발음해도 의사소통에 별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θ/는 빈도수와 기능 부담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어의 /ㅍ/나 /ㅌ/로 발음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교정하기를 권한다.

치조음 /s, z/는 <그림 2-13>에서 보듯이 연구개를 올려 비강을 차단한 상태에서 혀끝을 윗잇몸에 가까이 접근시켜 혀끝과 윗잇몸 사이의 좁은 틈으로 기류를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그림 2-14>에서 보듯이 /s, z/는 아랫니와 윗니가 거의 닿을 정도로 입을 닫고 발음하며, 비원순 모음 앞에서는 입술을 펴고 발음한다.



그림 2-13. /s, z/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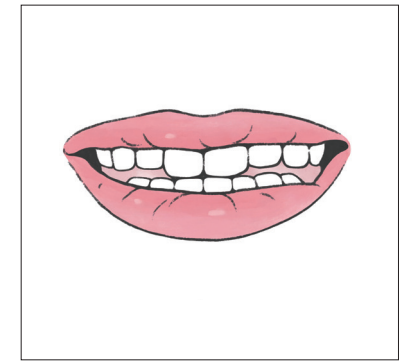


그림 2-14. /s, z/의 입 모양

한국어의 /ㅅ, ㅆ/를 영어의 /θ/와 비슷한 음가의 치 마찰음으로 발음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영어의 /θ/는 문제없이 발음하지만 /s/는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영어의 /s/는 한국어의 /ㅍ/와 음가가 훨씬 더 유사하므로 영어의 /s/를 /ㅍ/로 발음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영어에서 /s/가 음절 머리에서 다른 자음 앞에 나올 때 한국인들의 귀에는 /s/가 /ㅅ/로

들린다(예: stay [steɪ]/[스ᄃᆞᆫ], spring [sprɪŋ]/[스ᄃᆞᆫ리ᄃ]). 영어 음절 머
리에서 /s/가 다른 자음 앞에 나올 때 이 소리를 /s/로 발음하든 /ss/
로 발음하든 외국인들의 귀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편하게
/s/로 발음하면 된다.

영어의 /z/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자음 중 하
나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z/를 파열음 /z/로 범주화해서 발음하는
데, 혀가 윗잇몸에 닿지 않아야 마찰음이 생성되므로 혀끝을 윗잇몸에
닿지 않게 접근시켜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경구개치조음 /ʃ, ʒ/는 <그림 2-15>에서 보듯이 연구개를 올려 비강
을 차단한 상태에서 혀끝과 혀날을 윗잇몸에 접근시키고 동시에 전설
을 경구개에 접근시켜 혀끝, 혀날과 윗잇몸의 틈 사이로 기류를 통과시
켜 내는 소리이다. <그림 2-13>과 <그림 2-15>를 비교해 보면 /ʃ, ʒ/
의 조음점이 /s, z/보다 뚜렷하게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2-14>와 <그림 2-16>을 비교해 보면 /s, z/는 입술을 펴고 발음하고,
/ʃ, ʒ/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의 단어 '침'의 /s/ 발음은 영어의 /ʃ/와 음가가 매우 비슷하
기 때문에 /ʃ/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낼 수 있는 자음이다. 반면에
/ʒ/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자음이며, /z/보다도
배우기 더 어렵다. 영어의 /ʃ/는 큰 어려움 없이 발음하므로 이 자음을
발음하다가 성대를 진동시키면 /ʒ/를 낼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성
경구개치조음 /ʒ/를 내지 못하는 학습자는 그냥 한국어 /z/를 대신 사
용하길 권한다. /ʒ/가 빈도수와 기능 부담량이 매우 낮아 /ʒ/ 대신 한국
어 /z/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ʒ/와 /z/가 비슷한 음가의 마찰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ʒ/ 대신 /z/
를 발음해도 원어민들의 귀에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다.



그림 2-15. /ʃ, ʒ/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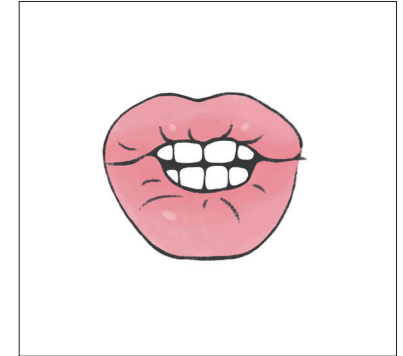


그림 2-16. /ʃ, ʒ/의 입 모양

성문음 /h/는 일정한 음가로 실현되지 않고 뒤이어 나오는 모음에
따라 다른 음가의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h/를 발음할 때 폐로부터 나
오는 기류는 성문을 통과하면서 성문 마찰음으로 변형된 다음 구강 안
에서 다음 모음의 조음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혀에 의해 이차적으로 변
형되어 후행 모음에 따라 다른 음가의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h/는 뒤이어 나오는 모음의 무성음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의 /h/는 한국어의 /ㅎ/와 동일한 음가의 소리이므로 한국인 학습자들
에게 /h/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자음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마찰음을 배우는 데 어
려움을 겪는데, 특히 유성 마찰음은 매우 생소한 소리라서 더 어려워한
다. 유성 마찰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성대 진동을 의도적으로
시키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며, 영어의 유성 마찰음은 어두나 어말에
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무성화되므로 너무 강한 유성음으로 발음하
는 것은 피해야 한다.

6. 영어의 파찰음

파찰음은 두 조음 기관을 완전히 접촉시켰다가 조금만 개방해서 그
틈새로 마찰 소음을 발생시켜 내는 소리이다. 파찰음은 막음, 부분 개

방, 마찰, 완전 개방의 네 단계로 조음되기 때문에 파열음 /t, d/와 마찰음 /ʃ, ʒ/가 연이어 조음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는 /tʃ, dʒ/ 두 개의 파찰음이 있다.

영어의 파찰음 /tʃ, dʒ/는 <그림 2-17>에서 보듯이 연구개를 올려 비강을 차단한 상태에서 혀끝과 혀날을 윗잇몸에 대고 전설을 경구개 쪽으로 접근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막음을 지속하다가 막음을 부분 개방해서 마찰 소음을 생성한 다음 완전히 개방해서 내는 소리이다. /tʃ, dʒ/의 막음 단계 조음점은 <그림 2-5>에 나오는 /t, d/보다 면적이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18>에서 보듯이 /tʃ, dʒ/는 /ʃ, ʒ/와 마찬가지로 입술을 둥글게 하고 발음하는 원순 자음이다.



그림 2-17. /tʃ, dʒ/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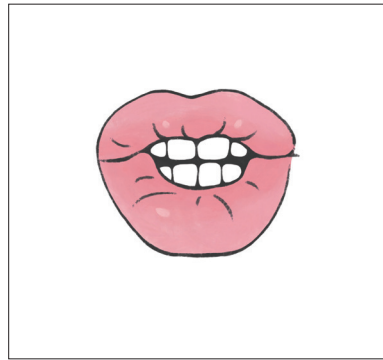


그림 2-18. /tʃ, dʒ/의 입 모양

한국어에는 /ㅈ, ㅊ, ㅉ/ 등 3개의 파찰음이 있다. 한국어의 /ㅈ/는 /ㅊ, ㅉ/와 같은 연음이고 /ㅊ/는 /ㅉ, ㅊ, ㅉ/와 같은 유기 경음이며, /ㅉ/는 /ㅉ, ㅉ, ㅉ/와 같은 무기 경음이다. 영어의 /tʃ/는 무성 유기 경음이며, /dʒ/는 유성 무기 연음이다. 한국어의 /ㅊ/는 영어의 /tʃ/와 대응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입술 모양에 있다. 한국어의 /ㅊ/는 뒤에 원순음이 오지 않을 때 입술을 펴고 발음하는 데 반해 영어의 /tʃ/는 항상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한다. 영어의 /dʒ/는 연음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ㅈ/로 발음하되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면 된다.

7. 영어의 유음

영어에는 /r, l/ 두 개의 유음이 있다. 영어의 /r/은 후치조음으로 혀끝을 치조 뒷부분에 접근시켜 발음하기도 하고, 혀날과 전설을 치조 뒷부분과 경구개 앞부분에 접근시켜 발음하기도 한다. <그림 2-19>의 위쪽 세 MRI 단면도는 혀끝을 윗잇몸이나 윗잇몸 뒷쪽에 접근시켜 조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음되는 /r/의 발음을 전통적으로 권설 /r/(retroflex r)이라 부르는데, 혀끝을 말아 권설음으로 발음하는 화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림 2-19>의 아래쪽 세 MRI 단면도는 혀날과 전설의 넓은 부위를 윗잇몸과 경구개 쪽으로 접근시켜 /r/을 조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발음되는 /r/을 뭉친 /r/(bunched r)이라 한다.



(a) The retroflex tongue shape



(b) The bunched tongue shape

그림 2-19. 권설 /r/과 뭉친 /r/의 조음(Zhou 외 2007)

영어의 /r/을 권설 /r/로 발음하든 뭉친 /r/로 발음하든 혀뿌리는 인두벽 쪽으로 접근시켜 발음하며, 다음의 <그림 2-20>에서 보듯이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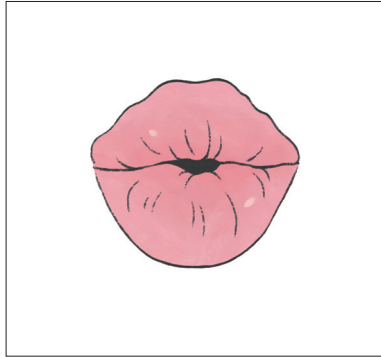


그림 2-20. /r/의 입 모양

영어의 /l/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혀의 양옆은 아래로 내려 기류를 혀의 양옆으로 통과시켜 발음하는 설측음이다. 영어의 /l/은 두 개의 주요 변이음으로 발음되는데, 하나는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후설은 아래로 내린 채 발음하는 **밝은 [l]**이다. 다른 하나는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로 후설을 연구개 쪽으로 접근시키고, 혀뿌리를 인두벽 쪽으로 접근시켜 발음하는 **어두운 [ɫ]**이다.

영어의 /l/은 음절 머리(syllable onset)에 나올 때 밝은 [l]로 발음되며(예: line [laɪn]/[라이:닌], claim [klaɪm]/[클레임]), 화자에 따라 혀끝을 윗니에 대고 치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때는 <그림 2-22>에서 보듯이 혀끝을 윗니 뒷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전면에서 혀의 아랫면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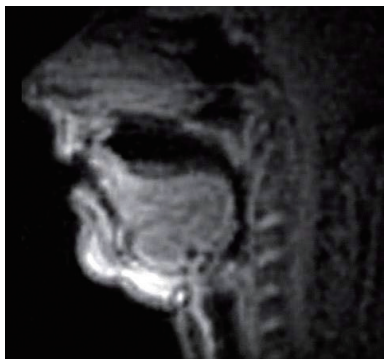


그림 2-21. 밝은 [l]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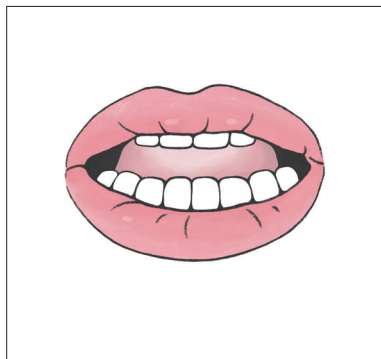


그림 2-22. 밝은 [l]의 입 모양

영어의 /l/은 음절 꼬리(syllable coda)에 나올 때 어두운 [ɫ]로 발음되며(예: hill [hɪɫ]/[히:ᄇ], milk [mɪɫk]/[미:ᄇ키]), 한글로는 [ᄇ]로 표기한다. 어두운 [ɫ]은 종종 <그림 2-23>⁴⁾에서 보듯이 혀끝을 아래로 내리고 후설을 연구개 쪽으로 올리고, 혀뿌리를 인두벽 쪽으로 후퇴시켜 발음한다. 이때는 <그림 2-24>에서 보듯이 혀끝이 아랫니 쪽으로 내려가 전면에서 혀날 부위가 보인다. 이와 같이 혀끝 조음을 수반하지 않는 어두운 [ɫ] 발음을 **모음화된 /l/**(vocalized /l/)이라 한다. 어두운 [ɫ]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약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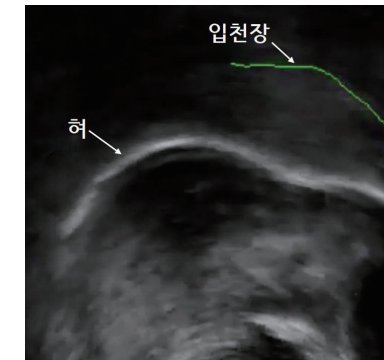


그림 2-23. 어두운 [ɫ]의 초음파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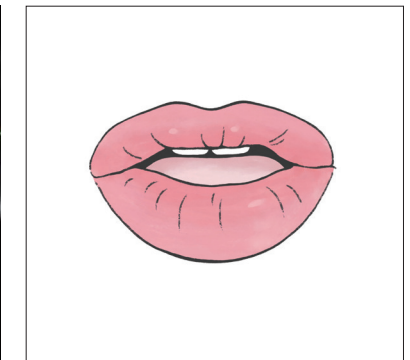


그림 2-24. 어두운 [ɫ]의 입 모양

음절 꼬리에 나오는 어두운 [ɫ]을 모음화된 /l/로 발음하는 사람도 뒤에 모음이 이어 나오면 연구개를 올리고 혀뿌리를 후퇴시킨 상태에서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발음한다(예: a bottle of water [ə baɪtl̩ əv wa:tər]/[·바:르ᄇ·ᄇ ㅍ아:르·리]).

화자에 따라서는 어두운 [ɫ] 앞에서 모음 /ʊ, ʌ, oʊ/가 /ʊ/로 중화되어 'lull [lʊɫ]/[ᄇᄇᄇ]', 'bull [bʊɫ]/[ᄇᄇᄇ]', 'bowl [bʊɫ]/[ᄇᄇᄇ]'이 같은 운(rhyme)을 갖는다.

4) <https://seeingspeech.ac.uk/r-and-l-in-english/?type=I#item=rl-14>

한국어에는 유음이 /r/ 하나밖에 없다. 한국어의 유음은 두 가지 주요 변이음으로 실현되는데, 하나는 설측음 [l]로서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혀의 양옆은 아래로 내리고 발음하며, 다른 하나는 탄설음 [r]로 혀끝으로 윗잇몸을 한번 튕겨 발음한다. 한국어의 단어 '달'의 받침 /ㄹ/은 영어의 '밝은 [l]'과 비슷한 음가를 가진 설측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밝은 [l]을 발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반면 한국어에 없는 어두운 [ɫ]은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영어의 /r/은 한국어에 없는 생소한 소리이므로 배우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영어의 /r/은 한국어의 /ㄹ/를 길게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유지한 채 혀끝을 위로 올리면 제대로 발음된다. 어두운 [ɫ]은 선행 모음 뒷부분에 한국어의 모음 /ㅓ/를 짧게 넣어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유지한 채 혀끝을 윗잇몸에 대서 발음하면 된다.

8. 영어의 비음

비음은 구강의 한 부분을 막고 연구개를 내려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비강을 통해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영어에는 /m, n, ŋ/ 등 3개의 비음이 있다. /m/은 양순음이고, /n/은 치조음이며, /ŋ/은 연구개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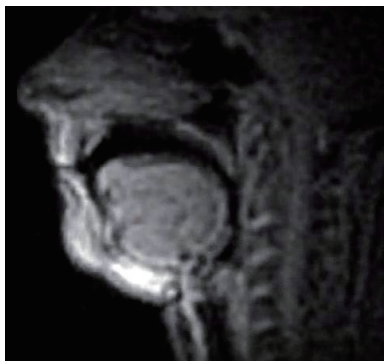


그림 2-25. /m/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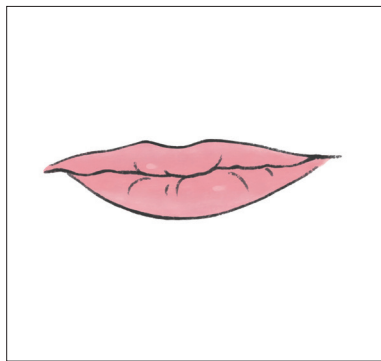


그림 2-26. /m/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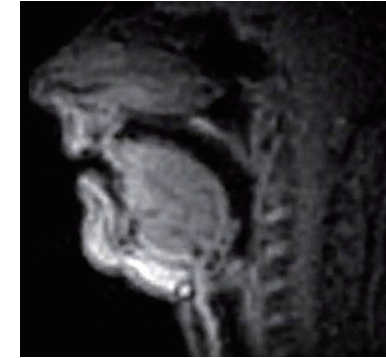


그림 2-27. /n/의 MRI 단면도



그림 2-28. /n/의 입 모양



그림 2-29. /ŋ/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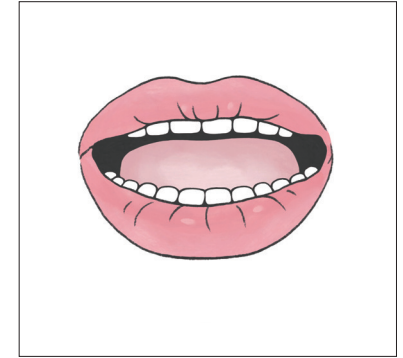


그림 2-30. /ŋ/의 입 모양

/m, n, ŋ/은 연구개를 내려 비강 통로를 열어 놓고 발음한다는 점에서 파열음 /p, t, k/와 차이가 나지만 구강 막음은 대응하는 파열음과 동일하게 일어난다. /m/은 두 입술을 대고 발음하고, /n/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발음하며, /ŋ/은 혀끝을 아랫니 뒤에 대고 후설을 연구개에 대고 발음하면 된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는 /ㅁ, ㄴ, ㅇ/ 등 3개의 비음이 있다. 한국어와 영어의 비음은 매우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비음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의 비음은 영어의 비음보다 짧게 발음되고 무성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귀에는 /b, d, g/로 들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어의 /m, n, ŋ/을 충분히 길게 발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9. 영어의 반모음

반모음은 고모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자음의 자리에만 나오는 소리이다. 영어에는 /j, w/ 2개의 반모음이 있다. 영어의 /j/는 한국어의 ‘ㅈ, ㅊ, ㅊ, ㅊ’의 첫소리와 동일하며, 영어의 /w/는 한국어의 ‘ㅈ, ㅊ, ㅊ, ㅊ’의 첫소리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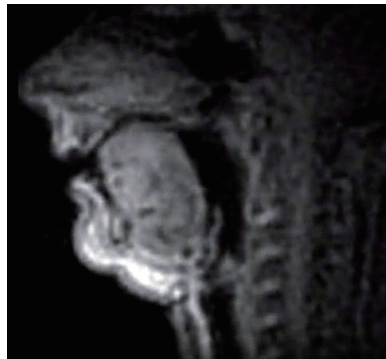


그림 2-31. /j/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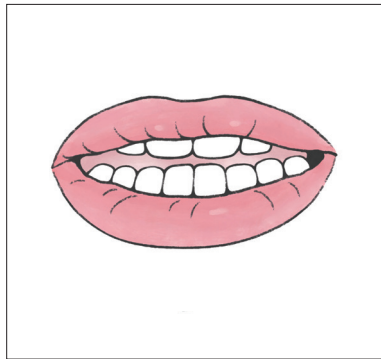


그림 2-32. /j/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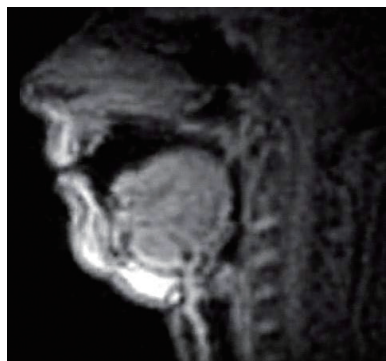


그림 2-33. /w/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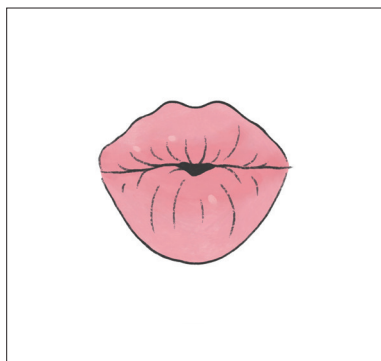


그림 2-34. /w/의 입 모양

<그림 2-31>과 <그림 2-32>에서 보듯이 /j/를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 모양이 전설 고모음 /i:/를 발음할 때와 매우 비슷하며, <그림 2-33>과 <그림 2-34>에서 보듯이 /w/를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 모양은 후설 고모음 /u:/를 발음할 때와 매우 비슷하다.

한국어에는 모음 /ㅣ/ 앞에 반모음 /j/가 나오지 못하고, 모음 /ㅜ, ㅜ/ 앞에 반모음 /w/가 나오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i:, ɪ/ 앞에 반모음 /j/가 나타날 수 있고(예: yield [ji:ld]/[ㅣ:ㅈㅣ], year [jɪr]/[ㅣ리]), /ʊ, ou/ 앞에 반모음 /w/가 나타날 수 있다(예: wood [wʊd]/[ㅜㅜㅣ], woke [wɒk]/[ㅜㅏㅣ]).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yield, year’를 반모음 없이 [ɪld]/[ㅣㅈㅣ], [ɪr]/[ㅣ리]로 각각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모음 /j/를 앞에 넣어 후행 모음보다 혀를 조금 더 올려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wood, woke’와 같은 단어도 맨 앞에 반모음 /w/를 넣어 후행 모음보다 혀를 조금 더 올리고, 입술을 조금 더 오므려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 ɪ/ 앞에 나오는 반모음 /j/와 /ʊ, ou/ 앞에 나오는 반모음 /w/는 약한 마찰음으로 발음된다.

제3장 영어의 모음

1. 영어 모음의 분류

영어 단어 ‘bee’의 모음 /i:/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가로 발음되는 반면 ‘cow’의 모음 /aʊ/는 처음과 끝부분이 다른 음가로 발음된다. /i:/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가로 발음되는 모음은 **단순 모음** (monophthong)이라 하고, /aʊ/처럼 처음과 끝부분의 음가가 다르게 발음되는 모음은 **이중 모음**(diphthong)이라 한다.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두 개의 발음 기호로 표기한다.

모음은 혀의 높이와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영어의 모음은 구강 안에서의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i:, u:], 중고모음 [ɪ, ʊ], 중저모음 [ɛ, ʌ, ɔ:], 저모음 [æ, ɑ:]로 나누고,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i:, ɪ, ɛ, æ], 중설 모음 [ə, ʌ, ɑ:], 후설 모음 [u:, ʊ, ɔ:]로 나눈다. 중앙 모음 [ə]는 혀 높이가 중고모음과 중저모음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영어의 후설 모음 [u:, ʊ, ɔ:]는 입술을 둥글게 하고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고, 나머지 모음들은 비원순 모음이다.

표 3-1. 영어 모음의 분류

혀 높이 \ 혀 위치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	[i:]		[u:]
중고모음	[ɪ]	[ə]	[ʊ]
중저모음	[ɛ]	[ʌ]	[ɔ:]
저모음	[æ]	[ɑ:]	

음성학에서 모음의 음가는 보통 모음 사각도 안에 점이나 원으로 표시한다. 모음 사각도는 일종의 좌표 역할을 해서 각 모음의 상대적인 음가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모음 사각도의 가로축은 혀의 위치와 관계있고, 세로축은 혀의 높이와 관계있다. 미국 영어의 단순 모음을 모음

사각도 안에 원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Wells 19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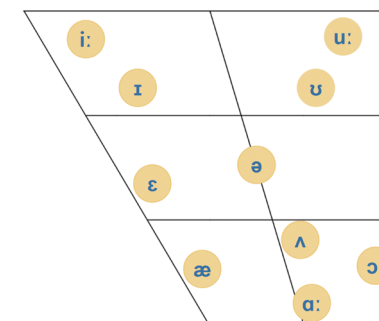


그림 3-1. 미국 영어의 모음 사각도

영어의 단순 모음은 10개나 되기 때문에 7개의 모음밖에 없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제대로 구별해서 발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음의 경우에는 조음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모음의 경우 혀의 위치와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영어 모음의 음가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영어에는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이 사라져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장모음과 단모음의 길이를 제대로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의 모음들 중에서 약모음 /ɪ, ə, ʊ/는 음가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고, 조음기관의 긴장을 빼고 짧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배우기 어려운 모음들인데, 출현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구별해서 청취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원어면에 더 가까운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영어의 자음보다 모음을 배우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자음 학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모음 학습에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모음 범주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모음을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의 <표 3-2>에서 보듯이 네 쌍의 영어 모음을 네 개의 한국어 모음으로 범주화하기 때문이다.

표 3-2.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모음 범주화 양상

예시 단어	영어		한국어
	IPA	한글	
bean	i:	ㅣ:	ㅣ
bin	ɪ	ㅣ!	
food	u:	ㅜ:	ㅜ
foot	ʊ	ㅜ≠	
pen	ɛ	ㅔ	ㅔ/ㅕ
pan	æ	ㅕ	
about	ə	·	ㅓ
cut	ʌ	ㅓ	
caught	ɔ:	ㅗ:	ㅗ
hot	ɑ:	ㅗ:	

한글 발음 기호에서 장모음 기호는 국제음성문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장음 부호 ‘:’을 그대로 사용한다. ‘bin’의 모음 /ɪ/는 ‘bean’의 장모음 /i:/보다 짧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입을 조금 더 벌리고 발음하므로 한글 모음 ‘ㅣ’ 아래에 혀를 조금 더 내려 발음한다는 의미로 마찰음 부호 ‘!’을 붙여 만들었다. 마찰음도 같은 조음자리의 파열음을 발음할 때보다 조음기관을 조금 더 내려 발음하므로 이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foot’의 모음 /ʊ/는 한국어 /ㅜ/와 /ㅜ/ 사이의 음가를 가진 소리라는 의미로 ‘ㅜ’와 ‘ㅜ’의 겹침 글자인 /ㅜ≠/로 표기했다. 영어 /ɛ/와 /æ/의 경우 한국어 표준어의 /ㅔ/와 /ㅕ/에 대체로 대응하지만 /æ/는 한

국어의 /ㅔ/보다 입을 더 벌리고 입술을 옆으로 더 펴서 발음해야 한다. 짧은음에서는 /ㅔ/와 /ㅕ/가 하나의 모음으로 합류되어 버려 /æ/를 /ɛ/와 같은 모음으로 범주화하기 때문에 이 두 모음을 구별해서 듣고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양 모음 /ə/의 음가는 <그림 3-1>에서 보듯이 모음 사각도에서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하늘(우주)의 중심 내지는 근원과 같은 모음이라는 뜻에서 지금은 사라진 아래아 /·/로 표기했다. /ʌ/는 후설 모음 /ɔ:/보다 더 중앙 위치에 있어 ‘ㅓ’로 표기하지 않고, 아래아와 ‘ㅣ’를 결합해 /ㅓ!/로 표기했다.

모음 /ɔ:/의 음가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ㅗ/로 범주화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한국어의 /ㅓ/와 음가가 매우 유사하므로 /ㅓ!/로 표기했다.

영어 모음의 음가는 배우기 매우 어렵지만 각 모음을 한글로 표기해서 익히면 기호 자체가 한국어 모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모음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영어의 단순 모음

3.1. /i:/와 /ɪ/

영어의 /i:/는 한국어의 /ㅣ/와 음가가 유사하지만 한국어의 /ㅣ/보다 혀를 조금 더 올리고 입술을 옆으로 더 펴고 길게 발음하는 소리이고, /ɪ/는 한국어의 /ㅣ/보다 혀를 조금 더 내리고 힘을 빼서 짧게 발음하는 소리이다.

<그림 3-2>와 <그림 3-3>을 보면 /i:/와 /ɪ/는 모두 전설 모음이라서 혀가 구강의 앞쪽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ɪ/를 발음할 때는 /i:/를 발음할 때보다 혀가 조금 낮아지고 약간 뒤로 후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4>와 <그림 3-5>에서 /i:/는 입술을 옆으로 펴고 아랫니가 보일 정도로 혀와 턱을 올려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ɪ/는 입술을 옆으로 많이 펴지 않고 아랫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혀와 턱을 조

금 내려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와 /ɪ/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모음 쌍인데, 빈도수도 높고 기능 부담량이 높아 구별해서 지각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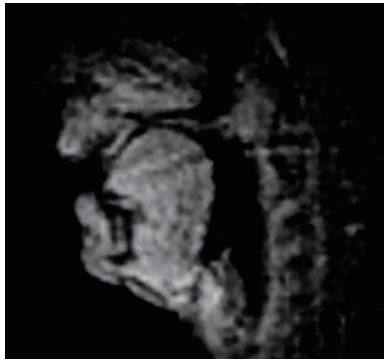


그림 3-2. /i:/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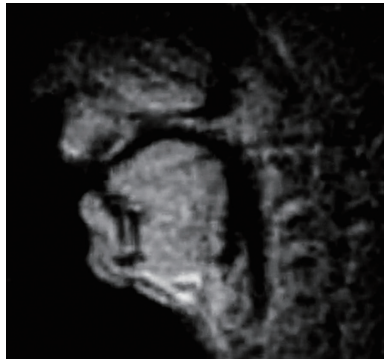


그림 3-3. /ɪ/의 MRI 단면도



그림 3-4. /i:/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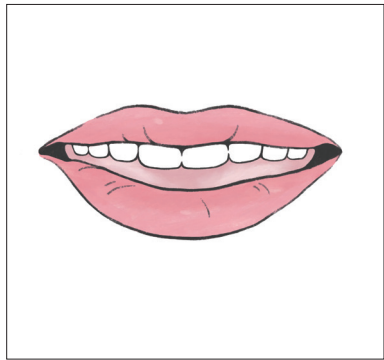


그림 3-5. /ɪ/의 입 모양

3.2. /u:/와 /ʊ/

영어의 /u:/는 한국어의 /ㅜ/를 길게 발음하면 되는데, 영어 화자에 따라서는 한국어의 /ㅜ/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앞으로 더 전진시켜 발음하기도 한다. 원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해야 한

다. /ʊ/는 /u:/보다 입술을 더 벌리고, 혀를 약간 뒤로 후퇴, 하강시키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ʊ/는 조음기관의 긴장을 풀고 짧게 발음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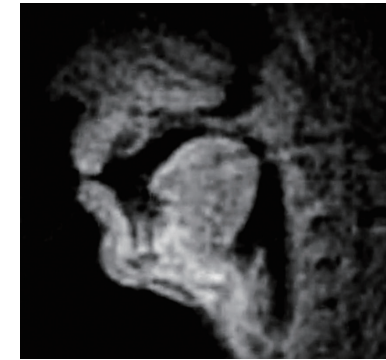


그림 3-6. /u:/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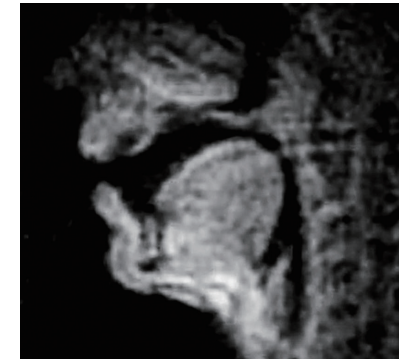


그림 3-7. /ʊ/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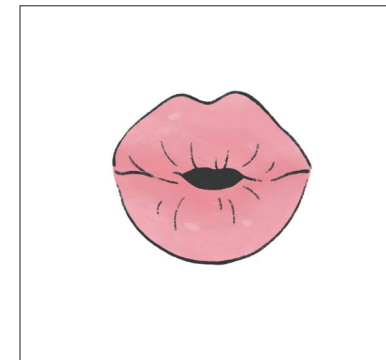


그림 3-8. /u:/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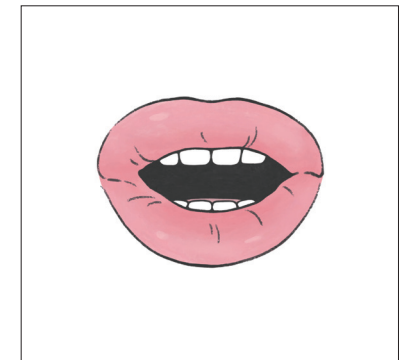


그림 3-9. /ʊ/의 입 모양

<그림 3-6>과 <그림 3-7>을 보면 /u:/는 후설을 연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ʊ/는 /u:/를 발음할 때보다 후설을 조금 더 내리고 뒤로 살짝 후퇴시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ʊ/를 발음할 때는 입도 더 벌리고, 구강 앞쪽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혀뿌리가 /u:/와 비교해서 조금 더 뒤로 후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8>과 <그림 3-9>를 보면 /u:/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

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ʊ/를 발음할 때는 윗니와 아랫니가 조금씩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리고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ʊ/의 원순성은 /u:/와 비교해 약간 풀린 것을 볼 수 있다. /u:/와 /ʊ/는 기능 부담량이 낮고, 스코틀랜드 영어에서는 구별되지 않으므로 두 모음을 구별하지 않고 /u:/를 길게 내기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u:/는 한국어의 /ㅜ/를 길게 발음하고, /ʊ/는 한국어의 /ㅜ/를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두 모음이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워진다.

3.3. /ɛ/와 /æ/

한국어의 /ㅔ/는 영어의 /ɛ/와 음가가 유사하다. 영어의 /æ/는 한국어의 /ㅔ/보다 입을 더 많이 벌리고 입술을 옆으로 더 펴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ɛ/와 /æ/는 빈도수가 높고 기능 부담량이 높은 음소 쌍이므로 어렵더라도 잘 배워서 구별해서 듣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10>과 <그림 3-11>에서 보듯이 /æ/는 /ɛ/보다 턱과 혀를 더 내리고, 혀뿌리를 조금 뒤로 후퇴시켜 발음한다. <그림 3-12>와 <그림 3-13>에서 보듯이 /æ/를 발음할 때는 /ɛ/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벌리고 발음한다. 입 벌림 차이는 거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면서 /æ/를 발음할 때 입이 충분히 벌어졌는지 거울로 확인하면 조금 더 쉽게 /æ/의 음가를 습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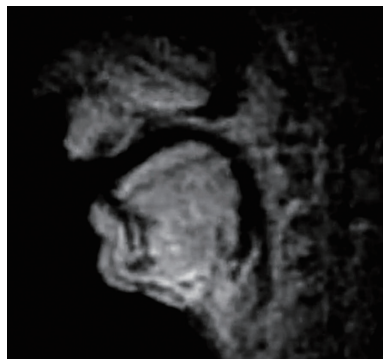


그림 3-10. /ɛ/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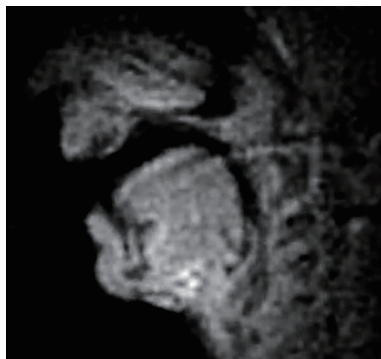


그림 3-11. /æ/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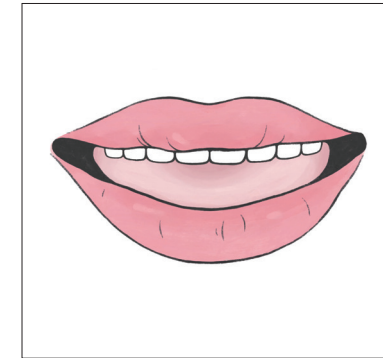


그림 3-12. /ɛ/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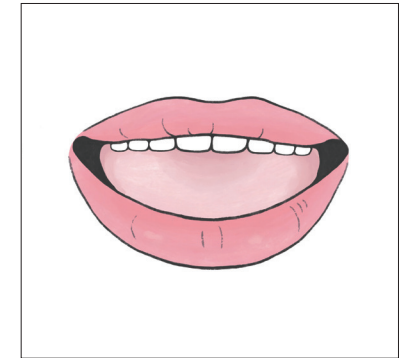


그림 3-13. /æ/의 입 모양

3.4. /ə/와 /ʌ/

영어의 중앙 모음 /ə/는 영어 발음 교육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모음이다. 빈도수가 가장 높고, 이 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영어의 자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앙 모음 /ə/는 힘을 빼고 한국어의 /ㅡ/보다 혀를 조금만 내리고, 혀는 조금 더 앞으로 전진시켜 짧게 발음하는 소리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ə/를 한국어의 /ㅓ/로 범주화해서 발음하는데, /ㅓ/는 후설 중저모음이라 청각적으로 너무 깊은 음가의 소리이다. /ㅓ/로 발음하는 것을 피하고 차라리 /ㅡ/로 발음하면 원어민들의 귀에는 영어 /ə/에 더 가까운 소리로 들린다.

영어의 /ʌ/는 /ə/보다 혀를 조금 더 내리고 발음하는 중설 모음이다. 물론 /ə/를 발음할 때와는 달리 조음 기관에 약간의 긴장을 주고 발음해야 한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ə/와 마찬가지로 /ʌ/를 한국어의 /ㅓ/로 범주화해서 발음하는데, /ㅓ/로 발음하면 원어민들의 귀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모음 /ɔ:/로 지각되므로 /ㅓ/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조금 앞으로 전진시켜 발음해야 한다.



그림 3-14. /ə/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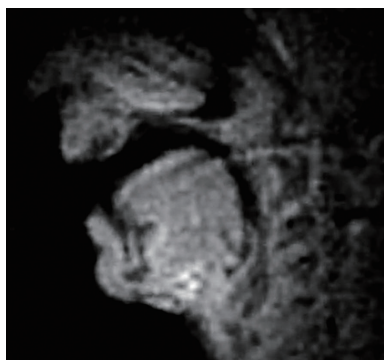


그림 3-15. /ʌ/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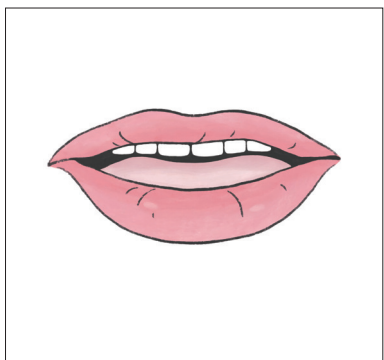


그림 3-16. /ə/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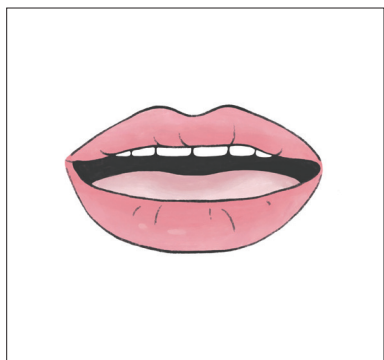


그림 3-17. /ʌ/의 입 모양

<그림 3-14>와 <그림 3-15>를 보면 /ʌ/는 /ə/보다 입을 조금 더 벌리고 혀도 함께 내려 발음하며, 혀뿌리는 인두벽 쪽으로 조금 더 접근시켜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도 /ʌ/를 발음할 때 /ə/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조금 더 벌리고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ɑ:/와 /ɔ:/

영어의 /ɑ:/는 한국어의 /ㅏ/를 길게 발음하면서 혀를 약간 뒤로 후퇴시켜 발음하는 모음이다. /ɔ:/는 한국어의 /ㅓ/와 음가가 매우 유사

한 모음으로 /ɑ:/를 발음할 때보다 혀뿌리를 인두벽 쪽으로 조금 더 후퇴시키고 후설은 연구개 쪽으로 조금 더 올려 발음한다.



그림 3-18. /ɑ:/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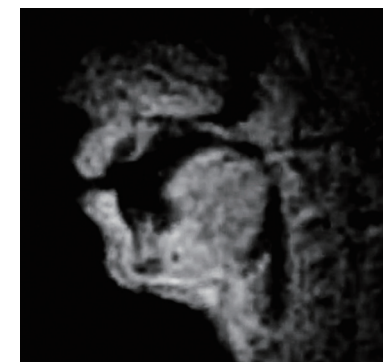


그림 3-19. /ɔ:/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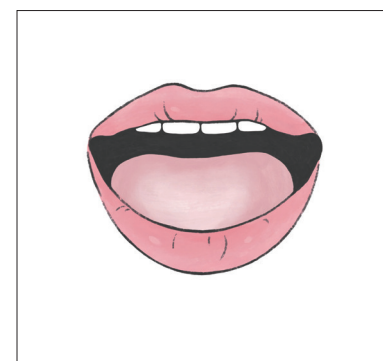


그림 3-20. /ɑ:/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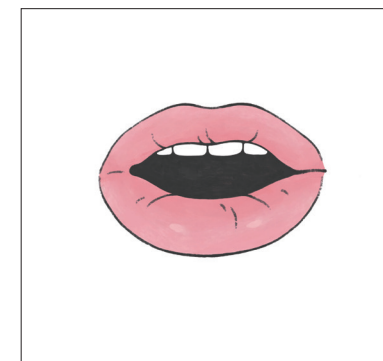


그림 3-21. /ɔ:/의 입 모양

<그림 3-18>과 <그림 3-19>를 보면 /ɑ:/를 발음할 때는 전설과 후설이 거의 같은 높이로 구강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ɔ:/를 발음할 때는 후설을 연구개 쪽으로 더 올리고, 전설은 아래로 내려서 구강 앞쪽의 공간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ɔ:/를 발음할 때 혀뿌리가 인두벽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0>과 <그림 3-21>을 보면 /ɑ:/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발음하고, /ɔ:/는 /ɑ:/보다 입을 조금 더 닫고 입술은 둥글게 해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ɑ:/와 /ɔ:/는 일부 미국인 화자들의 발화에서 오랜 기간 합류되어 왔다. 이 두 모음의 합류를 ‘cot-caught 합류’라고 한다. Vaux and Golder(2003)은 온라인 방언 조사를 진행했는데, 11,050명의 응답자 중 61%가 두 단어를 구별해서 발음한다고 응답했고, 39% 정도는 구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의 <그림 3-22>와 <그림 3-23>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방언에서 두 단어를 구별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림 3-22. 두 모음을 구별하는 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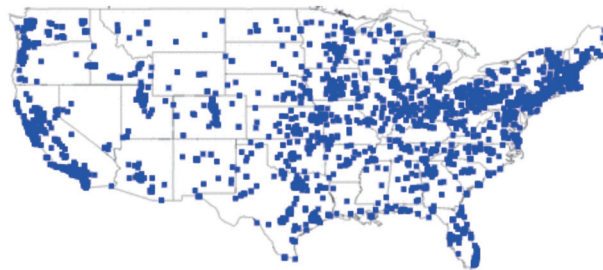


그림 3-23. 두 모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응답자 분포

Labov 외(2006)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과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역, 동부 오하이오주, 애플래치아 산맥에 인접한 서부 버지니아와 켄터키 지역에서 ‘cot-caught 합류’가 더 많이 진행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전역에서 두 모음의 합류가 일어났다.

4. 영어의 이중 모음

한 음절 안에서 연이어 나오는 두 모음 요소의 연결체를 이중 모음이라 한다. 영어에는 /eɪ, aɪ, ɔɪ, oʊ, aʊ/ 등 다섯 개의 이중 모음이 있다.

- (1) pay [peɪ]/[피:]], pie [paɪ]/[파이]], boy [bɔɪ]/[보이]],
boat [boʊt]/[보우트]], cow [kaʊ]/[카우]]

영어 이중 모음들의 음가 이동을 모음 사각도 안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Wells 19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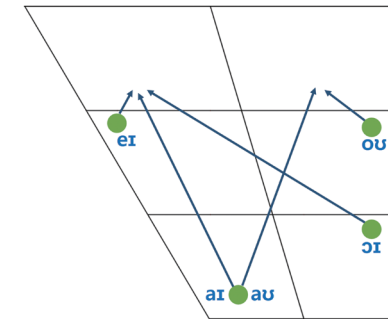


그림 3-24. 영어 이중 모음의 음가 이동

이중 모음 /eɪ/와 /oʊ/의 경우 첫 모음 요소들은 앞에서 설명한 /e/와 /ɔ:/보다 혀를 올려 발음하기 때문에 [e]와 [o]로 각각 표기한 것이며, /aɪ/와 /aʊ/의 첫소리는 /a:/보다 혀를 앞으로 전진시켜 발음하기 때문에 [a]로 표기한 것이다.

영어 이중 모음들의 첫 모음 요소는 강하게 발음하고, 두 번째 모음 요소는 짧고 약하게 발음해야 한다. 첫 번째 모음 요소가 음절 핵이 되고, 두 번째 모음 요소는 딸림 소리로 발음되는 이중 모음을 **내림 이중 모음(falling diphthong)**이라 한다.

5. r-음색 모음

미국 영어에서 모음 /ɜ, ə, ɑ, ɔ, ε, ɪ, ʊ/ 뒤에 후치조 접근음 /r/이 오면 선행 모음과 /r/이 하나로 융합되어 r-음색 모음(r-colored vowel)이 된다.

표 3-3. 영어의 r-음색 모음

IPA	한글 기호	예	대체 기호
ɜr	•:ㄹ	bird, heard	ɜ̄
ər	•ㄹ	standard, dinner	ɜ̇
ɑr	ㅏㄹ	start, car	(ɑ~)
ɔr	ㅓㄹ	north, war	(ɔ~)
εr	ㅕㄹ	bear, air	
ɪr	ㅣㄹ	beer, here	
ʊr	ㅠㄹ	pure,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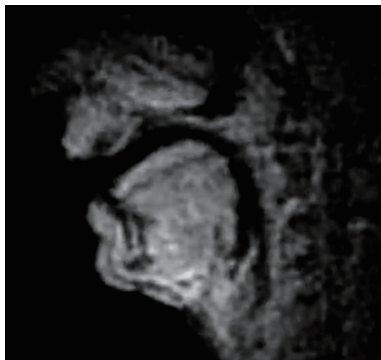


그림 3-25. /ɜr/의 MRI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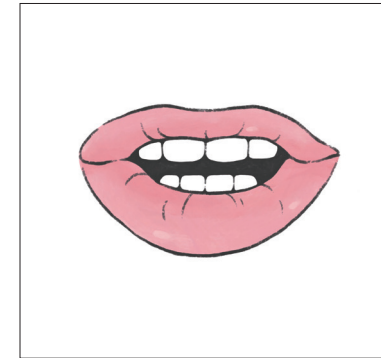


그림 3-26. /ɜr/의 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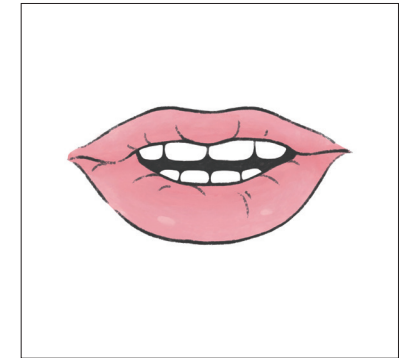


그림 3-27. /ər/의 입 모양

<표 3-3>에 나오는 /ɜr/와 /ər/은 매우 비슷한 음가로 발음되지만 강세 음절에 나타나는 r-음색 모음은 /ɜr/로 표기하고, 비강세 음절에서 나타나는 r-음색 모음은 /ər/로 구별해서 표기한다. <그림 3-26>과 <그림 3-27>에서 보듯이 /ɜr/를 발음할 때는 /ər/를 발음할 때보다 입술을 조금 더 둥글게 하고, 입을 조금 더 벌린다. 한글로 이 두 개의 r-음색 모음을 표기할 때는 강세 음절에 나타나는 /ɜr/은 장모음 기호를 붙여 /•:ㄹ/로 표기해 비강세 음절에 나타나는 /•ㄹ/과 구별했다.

/ɜr/과 /ər/은 전체가 r-음색 모음으로 발음되고, /εr, ɔr, ɑr/은 부분적으로만 r-음색 모음으로 발음된다. 고모음과 /r/의 연쇄체인 /ɪr/과 /ʊr/은 모음의 반 정도만 r-음색 모음으로 발음된다.

6. 무성 자음 앞 단모음화

영어의 모음은 무성 자음 앞에서 유성 자음 앞에서보다 뚜렷하게 짧게 발음된다. 어말 파열음 앞에 모음과 비음의 연쇄체가 오면 모음과 비음이 모두 무성 자음 앞에서 짧게 발음된다.

(2) bead/beat, bad/bat, send/sent

한국어에서 모음의 장단 대립이 사라져 한국인 학습자들은 유성 자음 앞의 모음이나 모음과 비음 연쇄체가 길게 발음되는 것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발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유성 자음 앞의 모음이나 모음과 비음 연쇄체를 짧게 발음하면 뒤에 무성 자음이 온 것으로 원어민들이 들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4장 영어 단어와 문장의 발음

1. 자음군의 발음

단어 안에서 둘 이상 이어 나오는 자음 연쇄체를 **자음군**(consonant cluster)이라 한다. 영어에서는 음절 머리에 자음이 세 개까지 나올 수 있고 음절 꼬리에는 네 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는 매우 많은 자음군이 존재한다. 한국어에는 제한적인 자음군만 나타나므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자음군을 발음할 때는 한국어에 없는 자음군을 잘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며, 자음군 내부나 뒤에 군더더기 모음 /r/, /w/를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1. 어두에 나오는 자음군

영어에서 어두에 나오는 자음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어두 자음군

자음+r/l	prawn, tree, drill, free, three, shrimp, claim, flat, slim
자음+j/w	pure, twin, queen, swing
/s/+자음	spy, star, sky, sphere, smile, snow
	spray, splash, squint, spew, student, skew

영어에서 /t, d/는 /r/이 이어 나올 때 파찰음 /tʃ, dʒ/와 비슷한 음가로 발음된다. 따라서 /tr/과 /dr/은 /tʃr/과 /dʒr/처럼 발음하는 것이 좋다. 'three'의 어두 자음군 /θr/도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군이므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자음과 반모음을 하나로 합쳐 발음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조음의 겹침은 있지만 자음과 반모음을 순차적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queen [kwi:n]'의 경우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은 어두 파열음

/k/와 반모음 /w/를 하나로 합쳐 [퀸]/[k^win]으로 발음하는데, 파열음과 반모음을 순차적으로 발음해서 [kwɪ:n]/[kwɪ:n]으로 발음해야 한다. 'twin'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들은 [틴]으로 발음하지 않고 [트윈]으로 발음해 모음 /i/를 길게 발음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어에서 무성 파열음 /p, t, k/는 /s/ 뒤에서 기(aspiration) 없이 발음되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은 /s/ 뒤에 나오는 /p, t, k/를 [ㅍ, ㅊ, ㅋ]처럼 발음하는 것이 좋다.

1.2. 어말에 나오는 자음군

영어에서 어말에 나오는 자음군은 다음과 같다.

(2) 어말 자음군

/l/+자음	help, belt, held, milk, bulge, shelf, wealth, pulse, film, kiln
자음+l, n/	bottle, middle, button, sudden, people
비음+장애음	lamp, aunt, lunch, change, nymph, warmth, length, rinse
마찰음+파열음	lisp, list, risk, left
파열음+마찰음	lapse, spitz, fox, AIDS, width, depth
파열음+파열음	adopt, act
파열음+마찰음+파열음	text, midst
비음+파열음+파열음	prompt, distinct, glimpse, jinx, against, amongst

위의 자음군들 중에서 'film'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들은 /l/과 /m/ 사이에 한국어 모음 /r/을 넣어 [피르-미]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l/을 어두운 [ㄹ]로 발음하고, 군더더기 모음 /r/을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kiln'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라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이 단어를 발음할 때도 /l/과 /n/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bottle'은 화자에 따라 [ˈbɑ:tɪl]로 발음되기도 하고, /t/가 [t] 앞에서 **탄설음화**(flapping)되어 [ˈbɑ:rɪl]로 발음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d/도 [d]

앞에서 탄설음화되어 ‘middle’이 [ˈmɪd]이나 [ˈmɪr]로 발음된다. /t, d/를 어말의 [l] 앞에서 탄설음화시키지 않고 발음할 때는 /t, d/의 조음 시 형성된 혀와 윗잇몸의 막음을 유지하다가 혀의 양옆만 아래로 내려 혀의 양옆으로 기류를 통과시키면서 [l]을 발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t, d/의 개방을 **설측 개방**(lateral release)이라 한다.

‘button’과 ‘sudden’은 각각 [ˈbʌtn̩]과 [ˈsʌdn̩]으로 발음되어 /t, d/ 뒤의 /n/이 성절 자음 [n̩]으로 실현된다. /t, d/와 [n̩] 사이에는 모음을 넣어 발음하면 안 되고, /t, d/를 조음할 때 형성한 혀와 윗잇몸의 막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구개만 하강시켜 기류를 비강으로 탈출시키면서 [n̩]을 발음해야 한다. 이와 같이 /t, d/의 구강 막음을 유지한 채 연구개를 내려 비강으로 기류를 탈출시켜 개방하는 것을 **비강 개방**(nasal release)이라 한다.

‘belt, hold’의 경우 /l/ 뒤에 /t, d/가 이어 나올 경우 /l/을 조음할 때 형성된 혀끝과 윗잇몸과의 막음을 유지한 채 혀의 양옆을 올려 /t, d/를 발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접근을 **설측 접근**(lateral approach)이라 한다. ‘aunt, send, hemp’의 경우에는 /n, m/을 조음할 때 형성된 구강 안의 막음을 유지한 채 연구개를 올려 뒤에 나오는 /t, d, p/를 발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을 **비강 접근**(nasal approach)이라 한다. 영어에서 나타나는 설측 접근과 비강 접근은 한국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발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spitz, fox, AIDS, width, midst’ 등의 단어에 나오는 어말 자음군들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자음군 안이나 뒤에 군더더기 모음을 삽입하지 않고 정확한 자음 음가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spitz, AIDS’처럼 /t/와 /s/, /d/와 /z/ 연쇄체들은 매우 자주 나타나므로 치조음으로 제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1.3. 어중에 나오는 자음군

다음은 어두와 어말에도 나오는 자음군을 제외한 어중 자음군 목록이다.

(3) 어중 자음군

장애음+장애음	rugby, husband, obtain, option, fracture, asphalt
장애음+비음	acme, acne, arithmetic, dogma, magnet, kidney
장애음+유음	gosling, every, muffler, peddler, butler, maudlin, athlete
비음+장애음	timber, finger, kingdom, Denver, clumsy, enter
비음+비음/유음	enmity, amnesia, only, Henry
/l/+r, w/	already, always
자음+/j/	onion, failure, new
세 자음	anthracite, belfry, country, pilgrim, pamphlet, antler, empty, function, capstan, instant, textile
네 자음	instrument, obstruct, express, exclaim

위의 예들 중 ‘kidney’에서는 /d/의 비강 개방을 수반하며, ‘peddler, butler, maudlin’에서 /t, d/는 설측 개방을 수반한다. 어중에서 /t, d/와 /n, l/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면 안 된다. ‘timber, finger, enter’에서 /b, g, t/는 비강 접근을 수반한다.

어중 자음군들 중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자음군은 ‘nl’, ‘nr’, ‘lr’이다. 많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only’는 [온니]/[올리]로 발음하고, ‘Henry’는 [헨리], ‘already’는 [올레디]로 발음한다. 이와 같은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발음해야 한다.

2. 강형과 약형

대표적인 현대 미국 영어 데이터베이스인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100개 단어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¹⁾

1) www.wordfrequency.info 참조

(4) 영어의 빈도수 상위 100 단어 목록

1. the	21. be	41. about	61. know	81. here
2. to	22. have	42. me	62. said	82. well
3. and	23. are	43. one	63. did	83. new
4. of	24. not	44. had	64. been	84. then
5. a	25. but	45. if	65. people	85. because
6. in	26. at	46. your	66. get	86. go
7. I	27. they	47. can	67. him	87. see
8. that	28. do	48. who	68. time	88. back
9. you	29. what	49. no	69. them	89. only
10. it	30. his	50. out	70. some	90. these
11. is	31. from	51. has	71. how	91. over
12. for	32. by	52. their	72. now	92. going
13. on	33. or	53. were	73. which	93. us
14. was	34. she	54. like	74. could	94. also
15. he	35. my	55. just	75. think	95. two
16. with	36. all	56. would	76. than	96. first
17. this	37. an	57. up	77. our	97. its
18. as	38. there	58. when	78. into	98. even
19. n't	39. so	59. more	79. other	99. good
20. we	40. her	60. will	80. right	100. way

위의 표를 보면 빈도수 100위 목록은 거의 대부분 문법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어는 몇 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to, and, a, that, we, of, have is, are, for, at, he, but, there, do, as, was them, will, were, can, him, had, have, from, some, her, his, us, an, am, has, shall' 등등 꽤 많은 문법어들이 강형(strong form)과 약형(weak form)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 회화에서 대조 강세를 받지 않는 한 약형으로 발음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강형과 약형을 배우지 못해서 강형으

로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문법어들을 약형으로 발음하지 않고 강형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약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발화의 자연성과 유창성이 떨어지게 되고, 약형을 듣지 못하면 청취 이해력도 떨어질 수 있다. 강형과 약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수가 많지 않아 약형에 대한 학습 부담은 별로 크지 않으므로 약형을 반복 학습하길 권한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의 발음을 제대로 해야 영어 발음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

2.1. 관사

단어	강형	약형	예
a	eɪ	ə	a book
an	æn	ən/n	an apple
the	ði:	ðə	the sun
		ði (모음 앞)	the olive

정관사 'the'는 자음 앞에서 [ðə]로 발음되고 모음 앞에서는 [ði]로 발음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성문 파열음 [ʔ]가 삽입되는 일부 방언에서는 모음 앞에서도 성문 파열음으로 인해 [ðə]로 발음된다 (예: the eagle [ðə ʔi:gl]).²⁾

2) <http://americanphonetics.ruhosting.nl/course/7-gradation-weak-and-strong-forms/7-2-gradation-of-articles/> 참조.

2.2. 대명사

단어	강형	약형	예
me	mi:	mi	Tell me your story.
you	ju:	ju/jə	Do you want to take a rest?
your	jʊr	jər	Your name, please?
he	hi:	(h)i	What he says is true.
him	hɪm	(h)ɪm	Don't you know him ?
his	hɪz	(h)ɪz	Can you give me his number?
she	ʃi:	ʃi	She likes reading.
her	hər	(h)ər	That's her favorite food.
we	wi:	wi	We 're waiting for you.
us	ʌs	əs	She gave us a gift.
		s	Let's go.
our	aʊr/ər	ər	Our team won the tournament.
them	ðɛm	(ð)əm	Tell them the truth.
their	ðɛr	ðər	They bought their car.

'he, his, him her'는 문장에서 대조 강세를 받지 않는 한 문장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h/가 탈락한 약형으로 발음되지만 문두에서는 /h/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5) **He** [hi] likes her.

Her [hər]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them'의 첫 자음 /ð/는 미국 영어에서 종종 탈락한다.

2.3. Be 동사와 조동사

단어	강형	약형	예
be	bi:	bi	I'll be there.
am	æm	əm/m	So am I. I'm a Korean.
are	ər	ər	The boys are courageous.
		r	You're kind.
is	ɪz	ɪz/z	She is an athlete. He's clever.
		s	That's good.
was	wʌz	wəz	Bill was diligent.
were	wɜr	wər	We were surprised.
have	hæv (본동사)	əv/v	They have gone. I've been there.
has	hæz (본동사)	əz/z	The place has changed. She's intelligent.
had	hæd (본동사)	əd/d	The day had been fine. They'd left school.
do	du:	də	How do they know?
		du	How do I know?
does	dʌz	dəz	When does Tom arrive?
		s/z	What's he like? When's he have lunch?
will	wɪl	wəl/l	If it's made of wood, it will float. She'll be there.
would	wʊd	wəd/d	He said he would be here by five. I'd like to meet him.
can	kæn	kən	You can go now.
could	kʊd	kəd	He could do it.
shall	ʃæl	ʃəl/ʃl	I shall complain.
should	ʃʊd	ʃəd	You should stop worrying about it.
must	mʌst	məs	I must finish my homework today.
		məst (모음 앞)	You must admit your mistake.

'am, are, is, have, has, had, does, will, would'는 축약형에서 모음이 탈락하고 자음 하나만 발음된다. 'do'와 'have, has, had'는 본동사

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강형으로 발음된다.

(6) I'll **do** the dishes.

I **have** a book.

'must'의 경우 후행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t/가 자음 사이에 끼어 탈락하게 된다.

2.4. 전치사

단어	강형	약형	예
at	æt	ət	See you at the airport.
for	fɔr	fər	It's for Wendy.
from	frʌm	frəm	She's from Singapore.
of	ʌv	əv	A lot of things happened.
to	tu:	tu	Is it good to eat a lot of vegetables?
		tə	To be or not to be

'to'는 모음 앞에서는 [tu]로 발음되고 자음 앞에서는 [tə]로 발음된다.

2.5. 기타

단어	강형	약형	예
as	æz	əz	She works as a receptionist.
than	ðæn	ðən	That's better than nothing.
and	ænd	ən	the sun and the moon
but	bʌt	bət	Nothing but the truth!
or	ɔr	ər	For here or to go?
because	bɪkɑ:z	bɪkəz	Smile because it happened.
there	ðɛr	ðər	There was no problem at all.

that	ðæt	ðət	I'm glad that you're here.
			The car that I bought is red.
who	hu:	(h)u	I have a friend who likes running.
some	sʌm	səm	Do you want some food?

'as'가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약형으로 발음되지만 문두에서는 강형이 사용된다.

(7) **As** a striker, he scored 24 goals in the Premier League.

'as'가 부사나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강형이 사용된다.

(8) ㄱ. 부사: Run **as fast as** you can.

ㄴ. 접속사: They gave up the project **as** I expected.

As you know, Korean summer is hot and humid.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등에서와 같이 'there'가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약형으로 발음되지만 부사로서 '그곳'이란 의미를 전달 때나 '거 봐!'라는 의미의 감탄사로 사용될 때는 강형으로 발음된다.

(9) ㄱ. 부사('그곳'): They're **there** to make money.

ㄴ. 감탄사('거 봐!'): **There** now!

'that'이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약형으로 발음되지만 지시 한정사, 지시 대명사, 부사로 사용될 때는 강형으로 발음된다. 'that'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구어체에서 대부분 생략된다.

(10) ㄱ. 지시 한정사: Look at **that** animal in the bush!

- ㄴ. 지시 대명사: **That's** my fault.
- ㄷ. 부사(‘그렇게’): I can't run **that** far.

‘who’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면 문장 강세를 받지 않아 약형으로 발음되지만 의문 대명사로 사용되면 강형으로 발음된다.

(11) **Who's** that girl?

‘some’이 한정사로서 약간의 수나 양을 나타낼 때는 약형으로 발음되지만 한정사로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대명사, 부사로 사용될 때는 강형이 사용된다.

(12) ㄱ. 한정사(‘전체 중의 일부’): **Some** students chose bread and others rice.

- ㄴ. 한정사(‘무슨, 어떤’): I'd like to swim at **some** beach.
- ㄷ. 한정사(‘대단한, 상당한’): It was **some** concert!
- ㄹ. 대명사(‘어떤 사람/것들’): **Some** are good, and **some** are bad.
- ㅁ. 부사(‘대략’): **Some** twenty people attended the ceremony.

2.6. 문법어가 강형으로 발음될 때

문법어가 **대조 강세**(contrastive stress)를 받을 때는 강형이 사용된다.

(13) I **have** been trying, even though you say I haven't.
I travel **to** and **from** London a lot.

문법어 뒤에 있던 단어가 통사 이동으로 인해 문두로 이동하면 남아

있는 문법어는 강형으로 발음된다.

(14) I can run faster than you **can**.
Where do you come **from**?
He's been written **to** twice.
What are you staring **at** now?

전치사가 대명사 앞에 올 때나 조동사가 ‘not’과 축약될 때는 강형으로 발음된다.

(15) I received a message **from** him.
I **haven't** received my confirmation email.

3. 축약형

영어의 대화체에서는 축약형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공식 문서에서는 축약형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축약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축약형을 제대로 발음해야 자연스럽게 들리며, 빠른 박자의 영어 리듬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축약형	발음	축약형	발음
I'm	aɪm	I'd (I had/I would)	aɪd
you're	jəʊ		
he's	hi:z	you'd	ju:ɪd
she's	ʃi:z	he'd	hi:ɪd
Jim's	dʒɪmz	she'd	ʃi:ɪd
it's	ɪts	we'd	wi:ɪd
that's	ðætʃz	they'd	ðeɪɪd
there's	ðeəz	it'd	ɪtɪd

we're	wɪr	there'd	ðərd
they're	ðeɪr	isn't	ɪznt
there're	ðəreɪr	aren't	ɑrnt
I've	aɪv	were'nt	wɜrnt
you've	juv	don't	daunt
there's	ðərz	didn't	dɪdn̩t
we've	wɪv	can't	kænt
they've	ðeɪv	won't	wəunt
who've	hu:v	mustn't	mʌsnt
there've	ðərv	d'you	dju:/dʒu:
I'll	aɪl	let's	lets
you'll	jəl	gonna (going to)	gənə
she'll	ʃɪl	wanna (want to)	wɑ:nə
he'll	hɪl	have to	hæftə
we'll	wɪl	has to	hæstə
they'll	ðeɪl	had to	hættə/hæɾə
this'll	ðɪsəl	supposed to	səpəʊstə
it'll	ɪl	used to	ju:stə

위의 표에서 'it'll'와 'it'd'의 경우 /t/가 모음과 모음, 혹은 모음과 성절 자음 사이에서 탄설음화되어 [ɪrɪ]과 [ɪrəd]로 발음되며, 'had to'의 /t/도 탄설음화되어 [hæɾə]로 발음되기도 한다. 'going to'와 'want to'의 축약형인 'gonna'와 'wanna'는 [gənə]와 [wɑ:nə]로 각각 발음된다. 'have to, has to, had to, supposed to, used to'의 경우 'to' 앞의 자음이 무성화되어 발음된다.

4. 단어의 연결

영어는 음절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자음과 자음이 이어 나

올 때, 혹은 자음과 모음이 이어 나올 때 비교적 단순한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영어에서는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가 이어 나올 때 한 소리가 탈락하는 **자음 탈락**(deletion) 현상, 한 소리가 다른 소리에 동화되는 **자음 동화**(assimilation) 현상, 그리고 두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는 **융합**(coalescence) 현상이 일어난다.

4.1. 자음 탈락

영어에서 음절 꼬리에 나오는 치조 파열음 /t, d/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종종 탈락한다. /t/는 앞 자음이 무성 자음일 때, 그리고 /d/는 앞 자음이 유성 자음일 때 탈락한다. 자음 탈락은 단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문장 안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자음 탈락을 시키지 않고 발음하면 리듬이 한 박자 늘어나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연습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16) ㄱ. /t/의 탈락

softball [sɔ:fbo:l], next time [nɛks taim]
 the first day [ðə fɜrs deɪ], most people [mɔs pi:pɪ]
 the best picture [ðə bes pɪktʃə], last week [læs wi:k]
 left leg [lɛf lɛg], locked car [lɔ:k kɑr]
 We walked down [wɔ:k daʊn] the road.

ㄴ. /d/의 탈락

sandstorm [sændstɔ:m], friendly [frɛnli]
 send them [sɛn ðəm], the second son [ðə sɛkən sʌn]
 old dream [oʊl dri:m], dragged back [dræg bæk]
 rubbed down [rʌb daʊn]

'wanted, winter'와 같은 단어들에서처럼 강세 모음과 비강세 모음 사이에 /nt/가 나오면 /t/를 탈락시키는 원어만 화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발음에서는 'winter'와 'winner'가 동음어가 된다.

4.2. 자음 동화

영어의 치조음 /t, d, n/은 종종 뒷 자음에 동화된다.

(17) ㄱ. /t/→/p/, /t/→/k/

right place [raɪp pleɪs], white beach [waɪp bi:tʃ]

not me [nɑ:p mi:], white coat [waɪk kəʊt]

quite good [kwɑɪk gʊd]

ㄴ. /d/→/b/, /d/→/g/

red paint [reb peɪnt], good boy [gʊb bɔɪ]

good morning [gʊb mɔ:rnɪŋ], sad kids [sæɡ kɪdz]

good girl [gʊɡ ɡɜ:rl]

ㄷ. /n/→/m/, /n/→/ŋ/

fanboy [fæmbɔɪ], ten people [ten pi:pəl]

one cup [wʌŋ kʌp], main gate [meɪn ɡeɪt]

한국어에서는 파열음 뒤에 비음이 이어 나오면 선행 파열음이 비음화 되기 때문에(예: 국물[궁물]),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비음 앞의 파열음을 비음화시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예: not me [nɑ:m mi:], good morning [gʊm mɔ:rnɪŋ]), 영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음군 /nd/는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이 이어 나오면 /d/가 탈락하고 /n/은 /m/이나 /ŋ/으로 발음되고, /nt/는 같은 환경에서 /mp/와 /ŋk/로 각각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18) ㄱ. /nd/→/m/, /nt/→/mp/

handbag [hæmbæɡ], kind man [kaɪm mæn]

stand back [stæm bæk], plant pot [plæmp pɑ:t]

efficient man [ɪfɪjəmp mæn]

ㄴ. /nd/→/ŋ/, /nt/→/ŋk/

mind game [maɪŋ ɡeɪm], kind guy [kaɪŋ gaɪ]

efficient girl [ɪfɪjəŋk ɡɜ:rl], urgent care [ɜ:dʒəŋk keə]

어말의 치조 마찰음 /s, z/도 /ʃ, ʒ/나 /j/가 이어 나오면 뒷소리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19) ㄱ. /s/→/ʃ/

this shop [ðɪʃ ʃɑ:p], nice shoot [naɪʃ ʃu:t]

unless you [ənleɪʃ ju], this year [ðɪʃ jɪr]

ㄴ. /z/→/ʒ/

those shops [ðəʊz ʃɑ:ps], these shirts [ði:z ʃɜ:ts]

Where's yours? [wɜ:z jɜ:z], turns you [tɜ:rnz ju]

4.3. 융합

치조음 /t, d, s, z/는 이어 나오는 /j, ʃ/와 융합되어 종종 /tʃ, dʒ, ʃ, ʒ/로 발음된다.

(20) ㄱ. /t/ → /tʃ/

what you say [wɑ:tʃu seɪ], didn't you? [dɪdn̩tʃu]

ㄴ. /d/ → /dʒ/

did you know [dɪdʒu nəʊ], Would you? [wʊdʒu]

ㄷ. /s/ → /ʃ/

this year [ðɪʃjɪr]

ㄹ. /z/ → /ʒ/

as you know [æzju nəʊ]

제5장 영어의 강세

1. 단어 강세

영어에서는 단어를 발음할 때 모든 음절을 같은 세기로 발음하지 않는다. 어떤 음절은 강하게 발음하고, 어떤 음절을 약하게 발음한다. 한 음절이 다른 음절(들)보다 더 강한 조음의 힘으로 발음되었을 때 그 음절은 **강세(stress)**를 받았다고 한다. 영어에서 강세는 **변별 기능(distinctive function)**을 가지고 있어서 강세 위치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기도 하고(예: 'billow/be'low), 품사가 구별되기도 한다(예: 'import(명사)/im'port(동사)).

강세는 단어나 문장에서 음절들 간의 강약 관계를 결정하는 **리듬 기능(rhythmic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영어는 여러 개의 강세 음절이 연이어 나오거나 여러 개의 비강세 음절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교차 리듬(alternating rhythm)**만을 허용하는 언어이다. 강세의 **기능 부담량(functional load)**은 그리 높지 않아서 강세 위치로 인해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 쌍이나 품사가 구별되는 단어 쌍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변별 기능보다는 리듬 기능이 영어 강세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영어의 단어에는 하나의 **주강세(primary stress)**가 부과되는데, 단어가 여러 음절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비강세 음절이 여러 개 이어 나오는 것을 막고 교차 리듬을 만들기 위해 **제2강세(secondary stress)**나 **제3강세(tertiary stress)**를 더 부과한다. 영어에서는 단어 앞부분에 비강세 음절이 셋 이상 이어 나오는 것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Wells 2014) 첫음절이나 둘째 음절에 반드시 강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어 중간이나 뒷부분에서는 비강세 음절이 세 개 나타나는 것이 허용된다(예: 'inter'nationali'zation, ad'ministrative).

- (1) ㄱ. 'city, re'sult, 'afterwards, im'portant, pho'tography
ad'ministrative
- ㄴ. 'thir'teen, 'ciga'rette, 'uni'versity, 'appa'ratus
in'dustriali'zation
- ㄷ. 'compre'hensi'bility, 'inter'nationali'zation
'extra'terri'tori'ality

(1ㄱ)은 하나의 주강세만 부과되는 단어들인데, 강세 음절은 비강세 음절보다 더 세고, 높고, 길게 **강박자(rhythmic beat)**로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비강세 음절의 모음이 약모음 /ɪ, ə, ʊ/로 약화되어 발음되거나 탈락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photo'는 첫음절에 강세가 부과되어 ['fourou]로 발음되지만 'photography'에서는 주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부과되어 첫음절 모음과 세 번째 음절 모음이 중앙 모음 /ə/로 약화되어 [fə'ta:grəfi]로 발음된다.

(1ㄴ)의 예들은 제2강세를 받는 단어들이라 각 단어를 두 개의 강박자로 발음해야 한다. (1ㄷ)의 예들처럼 7음절 이상의 긴 단어들에는 교차 리듬을 만들기 위해 제2강세, 제3강세, 심지어는 'extraterritoriality'에서처럼 제4강세를 부과해서 발음하기도 한다.

많은 예외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의 강세 위치는 규칙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Chomsky and Halle 1986, Cruttenden 1994 참조). 영어의 강세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 (2) ㄱ. 동사와 형용사
 - 끝음절이 단모음과 하나의 자음만으로 끝날 때 주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부과된다(예: 'polish, a'stonish, 'rigid, ex'cessive).
 - 다른 환경에서는 끝음절에 주강세가 부과된다(예: re'late, sub'lime, a'lone, 'enter'tain, re'ject, a'rrive).

ㄴ. 명사

- 끝음절이 단모음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음절로부터 두 번째 선행 음절에 주강세가 부과된다(예: 'quantity, 'innocence, en'counter).
- 끝음절이 장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음절에 강세가 부과된다(예: 'after'noon, i'dea, ma'chine, di'spute).

ㄷ. 다음절어

- 셋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끝음절에 장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과된다(예: 'anecdote, 'fahrenheit, 'pedigree, 'appetite).

영어의 접미사들 중에는 강세에 중립적인 접미사도 있고, 강세를 받는 접미사도 있고, 어근의 특정 음절에 강세를 부과하는 접미사도 있다 (Cruttenden 1994 참조).

(3) ㄱ. 강세 중립적인 접미사들

- in'firm~in'firmary, 'celibate~'celibacy
- a'gree~a'greement, 'usual~'usually
- 'difficult~'difficulty, 'bag~'baggy
- 'alcohol~'alcoholism, 'lead~'leader
- 'separate~'separatist, 'fool~'foolish
- 'circular~'circularize, 'lion~'lioness
- 'prettier, 'prettiest, 'childhood, 'beautiful, 'kingdom
- 'fluency, 'counter'clockwise, 'kindness, 'photograph
- 'telegram, 'dialogue, 'monotheism, 'monolith, 'analyse

ㄴ. 강세를 받는 접미사들

- 'mountain~'mountai'neer, 'picture~'pictu'resque
- 'usher~'ushe'rette, 'private~'privati'zation, bou'tique
- 'questio'nnaire, 'Chi'nese, ca'scade, 'seven'teen
- 'Hallo'ween, 'coa'lesce

ㄷ. 어근의 특정 음절에 강세를 부과하는 접미사들

- 'chaos~cha'otic, 'history~his'toric
- 'celebrate~'cele'bration, 'curious~curi'osity
- 'pharynx~pha'ryngeal, o'ccasion, te'lephonist
- pho'tographer, a'nalysis, mo'nogamy, pho'tography
- psy'chology, 'operate, me'tathesis, di'chotomy
- 'euphony, mi'croscopy, 'altitude, i'naugurate
- 'medicine~me'dicinal, 'exco'mmunicate

접미사들 중에서 '-able'은 강세에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able'은 대부분의 경우 (4ㄱ)에서와 같이 강세 중립적이다. 그러나 (4ㄴ)에서와 같이 둘째 음절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2음절 어근에 붙으면 강세가 첫 음절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4ㄷ)에서처럼 스스로 강세를 받는 경우도 있다. 화자에 따라서는 (4ㄴ)과 (4ㄷ)에서와 같은 강세 이동이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4) ㄱ. a'dore~a'dorable, com'panion~com'panionable
'realize~'realizable

- ㄴ. ad'mire~'admirable, a'pply~'applicable
- com'pare~'comparable, di'spute~'disputable
- la'ment~'lamentable, pre'fer~'preferable

- ㄷ. 'demonstrate~de'monstrable, 'extricate~ex'tricable
- 'explicate~ex'plicable

영어의 강세 규칙과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접미사들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영어의 강세 위치를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주강세를 엉뚱한 곳에 부과해서 영어를 발화하면 원어민은 발화 의미를 해석하는 데 노력과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와 같이 주강세의 위치는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사전에서 강세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익숙한 단어라도 강세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세 위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단어는 수시로 강세 위치를 확인해 보길 권한다.

2. 복합어와 구의 강세

영어에서 복합어에는 주강세가 첫 형태소에 부과되는 반면 구 (phrase)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에 주강세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복합어의 경우 첫 형태소에 주강세가 부과되면 둘째 형태소에는 강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의 경우에는 둘째 단어에 주강세가 부과되더라도 첫 단어의 강세는 구의 제2강세로서 유지된다.

- (5) ㄱ. 복합어: 'textbook, 'fountain pen, 'post office
 'music 'lessons
 ㄴ. 구: 'yellow 'shirts, 'pretty 'girl, 'very 'pretty
 'very 'frequently

이와 같은 복합어의 강세 규칙과 구의 강세 규칙의 차이로 인해 같은 형태소들로 이루어진 복합어와 구가 서로 다른 강세 패턴을 갖는 경우도 있다.

- (6) 'blackbird : 'black 'bird, 'White House : 'white 'house

위의 예에서 복합어 'blackbird'는 '찌르레기'라는 특정 종의 새를 의미하지만 구인 'black bird'의 경우 검은색 깃털을 가진 새를 의미한다. 그리고 'White House'는 백악관을 의미하지만 'white house'는 흰색 페인트를 칠한 집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합어들 중에는 구와 같은 강세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다(Cruttenden 1994, Wells 2000 참조).

- (7) ㄱ. 명사+명사(앞 명사가 뒷 명사의 재료일 때)
 'paper 'bag, 'lemon 'squash, 'apple 'pie
 (예외: 'cheese cake, 'orange juice, 'lambswool)
 ㄴ. 명사+명사(첫 명사가 고유명사일 때)
 'Camden 'Town, 'Gatwick 'Airport, 'Oxford 'Road
 (예외: 'Christmas cake, 'Oxford Street, 'Baker day)
 ㄷ. 명사+형용사('명사'처럼 '형용사'한)
 'sea-'green, 'stone-'deaf, 'waist-'high
 ㄹ. 부사+동사, 전치사+동사
 'out'number, 'out'wit, 'over'sleep, 'under'go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어의 강세 패턴은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들이 많이 존재하므로(예: 'acid 'rain, a'roma 'therapy) 새로운 복합어를 접할 때마다 사전에서 강세 패턴을 확인해서 익혀 두길 권한다.

구와 같은 강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 'thir'teen, 'aca'demic)가 첫 음절에 주강세를 가지고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강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하는 단어의 주강세가 제2강세 음절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강세 이동(stress shift)**이라 한다. 강세 이동으로 인해서 두 개의 강한 강세가 연이어 나오는 강세 충돌이 방지되고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이 번갈아 나오는 교차 리듬이 형성된다. Wells(2000)에는 강세 이동이 일어나는 단어들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급 수준의 학습자는 이 발음 사전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8) ㄱ. 'aca'demic ~ 'aca'demic 'year
 'thir'teen ~ 'thir'teen 'men
 ㄴ. 'very 'pretty ~ 'very 'pretty 'girl

문장이나 구에서 세 개의 강세가 연이어 나오면 둘째 강세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네 개의 강세가 연이어 나올 때는 세 번째 강세가 약화된다.

(9) ㄱ. The 'B|B'C, 'two |fat 'ladies

It was 'Monday |March the 'fourth.

ㄴ. 'very 'pretty |little 'girl, 'almost 'hard-|boiled 'egg

한국어에서는 복합어와 구 모두 첫 형태소에 주강세가 부과되기 때문에(Lee 1990 참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복합어와 구 모두 첫 형태소에 주강세를 부과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바른 위치에 강세를 부과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10) 복합어 및 구 강세 오류

'apple pie, 'lemon squash, 'royal box, 'very basic
thir'teen men, aca'demic year, The 'BBC

3. 문장 강세

영어의 단어는 문장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어**(content words)와 내용어들을 문법적으로 연결해 주는 **문법어**(grammatical word)로 나눈다. 내용어에는 명사, 형용사, 본동사, 부사 등이 있으며, 문법어에는 대명사, 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이 있다. 영어의 문장을 발화할 때 내용어에는 문장 강세가 부과되고 문법어에는 문장 강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문장 강세를 받는 내용어들을 살펴보자(Kingdon 1958, Couper-Kuhlen 1986 참조).

(11) 문장 강세를 받는 내용어

ㄱ. 명사: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ㄴ. 본동사: 'Don't 'waste your 'youth.

ㄷ. 형용사: He's a 'famous 'novelist.

ㄹ. 부사: I 'usually 'go to 'bed at 'midnight.

예외적으로 명사들 중에서 'thing, people, place'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 없는 명사는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관계 부사도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다.

(12) ㄱ. 'Memory loss is when you have 'trouble re'calling
things.

ㄴ. 'That's the 'reason **why** I re'spect him.

문법어들 중에서 전치사, 조동사, 접속사는 거의 예외 없이 문장 강세를 받지 못한다.

(13) 문장 강세를 받지 못하는 문법어

ㄱ. 전치사: 'Why are you 'staring **at** me?

ㄴ. 조동사: She **can** 'play 'tennis.

ㄷ. 접속사: It is 'widely 'known **that** he's the 'best in his
'field.

예외적으로 조동사는 의문문 문두에서 종종 문장 강세를 받기도 하며, 조동사 중 'might'는 의미 비중이 커 문장 강세를 받는 경향이 있다.

(14) ㄱ. 'Do I 'know you?

ㄴ. If you were 'older, you '**might** under'stand.

대명사는 문법어라서 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 상호 대명사, 관계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문장 강세를 받지 않지만 지시 대명사, 소유 대명사,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문장 강세를 받는다. 부정(不定) 대명사의 경우 주어로 사용될 때는 문장 강세를 받지만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다.

(15)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 대명사

- ㄱ. 인칭 대명사: Can **you** 'lend **me** a 'hand?
- ㄴ. 재귀 대명사: I con'sider **myself** a 'good 'salesman.
- ㄷ. 상호 대명사: They 'don't 'speak to **each other**.
- ㄹ. 관계 대명사: I 'know a 'girl **who** 'has a 'beautiful 'voice.
- ㅁ. 부정 대명사: I 'wanna 'love **somebody** like you.

(16) 문장 강세를 받는 대명사

- ㄱ. 지시 대명사: '**That**'s the 'truth.
- ㄴ. 소유 대명사: I 'didn't 'know '**his** was 'there.
- ㄷ. 부정 대명사: '**Somebody** must have 'stolen it.
- ㄹ. 의문 대명사: '**Who**'s 'next?

한정사는 관사, 소유 한정사, 관계 한정사, 부분사로 사용될 때는 문장 강세를 받지 않지만 지시 한정사, 부정(否定) 한정사, 수량 한정사, 의문 한정사, 전치 한정사(predeterminer), 차별어(difference word)로 사용될 때는 문장 강세를 받는다.

(17)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 한정사

- ㄱ. 소유 한정사: I 'saw **your** 'brother.
- ㄴ. 관계 한정사: Is 'that the 'man **whose** 'daughter 'plays 'tennis?

- ㄷ. 관사: **The** 'camera you 'want to 'buy is a 'popular 'model.
- ㄹ. 부분사: 'Have you 'brought **any** 'sugar?

(18) 문장 강세를 받는 한정사

- ㄱ. 지시 한정사: '**That** 'car is 'so ex'pensive.
- ㄴ. 부정(否定) 한정사: There's '**no** 'doubt about it.
- ㄷ. 수량 한정사: 'Everything will 'get 'better in a '**few** 'days.
- ㄹ. 의문 한정사: '**What** 'food do you 'like 'best?
- ㅁ. 전치 한정사: You can 'earn '**double** your 'income.
- ㅂ. 차별어: Can you 'give me a '**nother** 'piece of ad'vice?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 문법어라도 대조 강세(contrastive stress)를 받을 때는 문장 강세를 받는다.

(19) ㄱ. It's '**my** turn. (Not yours.)

- ㄴ. Although you 'deny it, he '**did** his best to help you.

영어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내용어와 문법어를 구별하고 내용어에 문장 강세를 부과해서 발화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4. 영어의 리듬

심장 박동 소리나 자동차의 깜빡이 소리처럼 같은 패턴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풀이될 때, 이 소리들은 리듬(rhythm)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음악에서는 강박자와 약박자로 이루어진 똑같은 리듬 패턴이 마디 마디 반복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4분의 3박자 왈츠 리듬은 '강약약' 리듬 패턴이 모든 마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각 마디는 동일한 길

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박자**(rhythmic beat)는 동일한 간격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리듬의 본질은 강약으로 이루어진 리듬 패턴이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듬 패턴이 동일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등시성**(isochronism)이라 한다.

음악과 같은 규칙적인 리듬이 언어에서도 나타날까? 리듬 패턴이 가장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울격을 가지고 있는 영시의 낭송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바이런(Byron) 시의 일부이다.

(20) She walks in beauty, like the night
 . ● . ● . ● . ●
 Of cloudless climes and starry skies
 . ● . ● . ● . ●

위의 시는 하나의 비강세 음절과 하나의 강세 음절이 약강형 패턴의 **음보**(foot)를 이루고 있고, 약강형 패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 행이 네 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약강형 4음보 울격**(iambic tetrameter)을 가진 시이다. 영시는 낭송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기 때문에 이 시를 낭송할 때는 강세 음절을 일정한 간격으로 발음해야 한다. 강세 음절을 발음할 때마다 손으로 책상을 치는 연습을 하면 영시의 리듬을 익힐 수 있다.

일상 영어에서도 영시의 낭송에서 볼 수 있는 규칙적인 리듬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영시의 낭송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규칙적인 리듬은 없다. 그러나 강세 음절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은 있다.

(21) 두 개의 문장 강세를 받는 문장들

'Quite 'right. ● ●
 'Come for 'tea. ● . ●
 'What would you 'like? ● . . ●
 'Twenty of them 'came. ● . . . ●
 'Jennifer was in 'Rome. ● ●

위의 예를 보면 두 개의 강세 음절 사이에 0개에서 4개의 비강세 음절이 있는데, 전체 음절 수에 비례해서 각 문장의 발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음절 수가 늘어나면 전체 문장의 발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강세 음절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발음되는 뚜렷한 경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강세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가진 리듬을 **강세 시간 리듬**(stress-timed rhythm)이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단어의 발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발화에서도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이 번갈아 나타나는 교차 리듬이 형성된다. 강세 음절은 세고, 높고, 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 비강세 음절은 약하고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강형과 약형을 갖고 있는 문법어들은 문장 강세를 받지 않을 때 약형으로 발음된다.

문장의 리듬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강약형 패턴과 약강형 패턴을 더 살펴보자.

(22) 강약형 패턴과 약강형 패턴

ㄱ. 강약형 패턴		ㄴ. 약강형 패턴
'Thank you. ●		I 'know. . ●
'Go for it. ● . .		Is it 'true? . . ●
'Give it to him. ● . . .		Is it pre'paid? . . . ●

(22)의 강약형 패턴과 약강형 패턴을 연습할 때도 비강세 음절 수는 다르지만 문장 전체의 길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문장이 길 때는 중간에 긴 휴지를 두고 발음한다. 이 때 숨쉬기를 하기도 한다. 긴 휴지로 인해 구분되는 리듬 및 억양 단위를 **억양구**(intonation phrase)라고 한다. 억양구는 문장보다는 작은 문법 단위인 동시에 의미 및 정보 단위이다.

(23) I 'ran to the 'station | and 'caught the 'train.



위에서 ‘|’는 억양구 경계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긴 문장도 적당한 곳에 억양구 경계를 부과하고, 문장 강세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러운 영어 리듬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 뇌의 **작업 기억**(working memory)에서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 **장기 기억**(long-term memory)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문제는 작업 기억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번에 3~4개의 정보밖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의 예문처럼 9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듣고 단어 단위로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 작업 기억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문장 해석에 혼선이 생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의미를 리듬구 단위로 해석한다면 4개의 리듬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리듬구 단위의 의미 해석에 익숙해지면 영어의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단어 강세와 문장 강세를 올바른 위치에 부과하고, 강세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화하는 연습을 하면 영어의 유창성과 자연성이 크게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리듬 학습은 영어의 청취력 향상에 도 크게 도움이 된다.

(23)의 예에서 ‘I ran’, ‘to the station’, ‘and caught’, ‘the train’은 각각 하나의 강세 음절과 0~3개의 비강세 음절로 이루어진 **리듬구**(rhythm unit)를 이룬다. 리듬구는 억양구보다 작은 리듬 단위인 동시에 문법·의미·정보 단위이다. 리듬구는 음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강세 음절과 0개 이상의 비강세 음절로 이루어진 리듬 단위인데, 음보는 문법이나 의미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강세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설정되는 반면 리듬구는 강세 음절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단어 경계에서 경계가 설정된다. (24)에서 보듯이 ‘beauty’ 내부의 음절 경계에 음보 경계가 부과되는 반면, 리듬구 경계는 ‘beauty’ 다음에 부과된다.

(24) She walks in beauty, like the night



영시 창작이나 분석에서는 음보의 개념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하는 영어 리듬의 분석과 학습에서는 리듬구의 개념이 훨씬 더 유용하다.

제6장 영어의 억양

1. 억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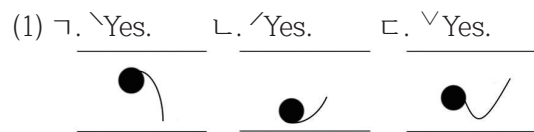
우리는 말을 할 때 모든 음절을 같은 높이로 발음하지 않고 소리를 높였다 내렸다 하면서 발음한다. 말소리의 높낮이는 리듬과 어우러져 말의 가락을 이루는데, 말의 가락을 **억양(intonation)**이라 한다.

억양은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가 자음이나 모음을 잘못 발음하면 외국인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용인해 주는 반면 원어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억양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원어민이 매우 불쾌해할 수도 있다. 문장의 의미는 좌뇌에서 해석되는 반면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는 억양의 의미는 우뇌의 감정 해석 영역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양 학습을 경시하면 안 된다.

억양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배운다고 제대로 된 영어 억양을 구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꼭 학습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기술할 것이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억양 패턴들을 익숙하게 연습해서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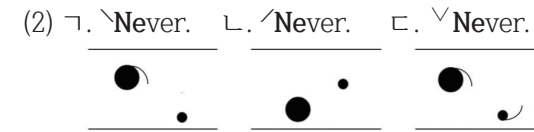
2. 영어의 억양 구조

한 음절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문장에 얹히는 억양부터 살펴보자.



위의 예는 단음절 문장 “Yes.”에 얹히는 세 개의 억양 패턴을 보여 준다. “Do you love me?”라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대해 (1ㄱ)에서처럼 내림조 억양으로 대답하면 단순명료한 긍정 답변이 된다. (1ㄴ)에서처럼 오름조 억양으로 대답하면 “그럼. 그런데 왜?”라는 의미의 답변이 된다. (1ㄷ)처럼 내리오름조 억양으로 대답하면 “그렇긴 하지만...”과 같이 다소 유보적인 의미의 답변이 된다. 내림조 패턴은 강세 음절 앞에 ‘\’로 표기하고, 오름조와 내리오름조 패턴은 각각 ‘/’와 ‘∨’로 표기한다. 이 억양 기호들은 강세와 억양 패턴을 동시에 표시한다. 그리고 억양 그림에서 윗줄은 음역의 상한선을 나타내고, 아랫줄은 하한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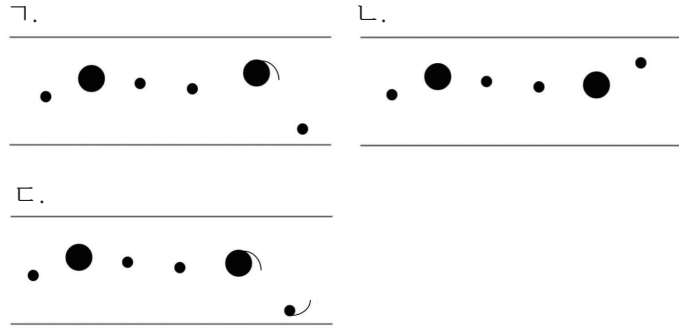
두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에 내림조, 오름조, 내리오름조 패턴이 없으면 억양의 내림, 오름, 내리오름이 두 음절에 걸쳐 실현된다. (2)의 그림에서 큰 점은 강세 음절을, 작은 점은 비강세 음절을 나타낸다.



“Have you been to Africa?”란 질문에 대해 (2ㄱ)처럼 내림조로 대답하면 단순명료하게 아프리카에 가 본 적이 없다는 의미의 답변이 되고, (2ㄴ)처럼 오름조로 대답하면 “안 가 봤지. 당연한 것 아니야?”와 같은 의미의 답변이 된다. (2ㄷ)처럼 내리오름조로 대답하면 “가 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 정도의 답변이 된다.

여러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 이상의 문장 강세가 부과된 문장 발화를 살펴보자.

(3) You ¹might win a ¹for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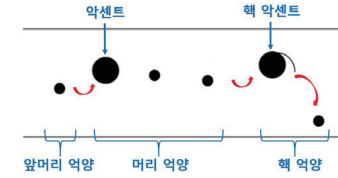
(3가)은 상대방이 큰돈 벌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으로 들리고, (3나)은 서술문이 아니라 “너 큰돈 벌지도 몰라.”라고 말했어?”라는 의미의 되물음 의문문(echo question)으로 들린다. (3다)은 “너는 큰돈 벌지도 모르지만...”과 같은 유보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위의 예문에서 ‘might’는 조동사지만 어떤 가능성을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 비중이 커 문장 강세를 받는다.

억양에는 억양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는데, 문장 강세를 받는 음절은 억양의 변곡점과 정렬되어 뒤에 이어지는 억양 패턴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억양의 변곡점과 정렬되는 강세 음절은 **악센트(accent)**, 혹은 **고저 악센트(pitch accent)**를 받았다고 한다.

(3)의 세 발화는 각기 다른 억양 의미를 전달하는데, 각 발화가 전달하는 억양 의미의 차이는 ‘fortune’에 얹히는 억양 패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문장이나 억양구의 끝부분에 얹히는 억양 패턴은 억양 의미의 대부분을 전달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핵 억양(nuclear tone)**이라 한다. 핵 억양에 앞서 나오는 억양 패턴을 **머리 억양(head)**이라 하고, 머리 억양에 앞서 나오는 억양 패턴을 **앞머리 억양(pre-head)**이라 한다.

(4)에서 보듯이 첫 번째 악센트 음절은 앞 음절로부터의 고저 상승이 이루어졌고 머리 억양을 이끌고 있으며, 두 번째 악센트 음절도 앞 음절로부터의 고저 상승이 이루어졌고 내림조 핵 억양을 이끌고 있다.

(4) You ¹might win a [\]for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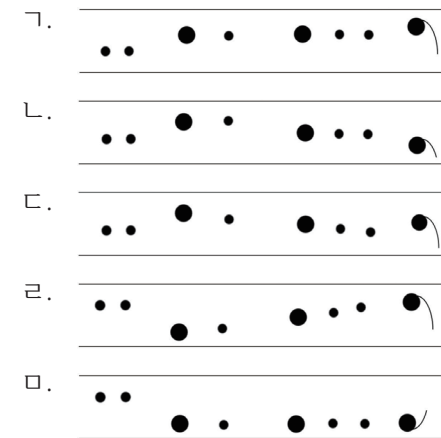


억양구의 마지막 악센트는 억양에서 핵 억양을 이끄는 기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핵 악센트(nuclear accent)**라고 하고, 첫 번째 악센트는 머리 억양을 이끄는 기점 역할을 한다. 핵 억양은 핵 악센트 음절에서부터 억양구의 끝음절에까지 없히고, 머리 억양은 첫 번째 악센트 음절에서부터 핵 악센트 음절의 앞 음절에까지 없힌다. 그리고 앞머리 억양은 첫 악센트 음절에 선행하는 음절(들)에 얹힌다.

핵 억양은 필수적인 억양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억양구에는 반드시 하나의 핵 억양이 부과된다. 반면에 머리 억양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이 아니어서 억양구가 하나의 악센트만 포함하고 있으면 머리 억양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머리 억양도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이라서 억양구가 악센트 음절로 시작되면 나타나지 않는다.

세 개의 문장 강세가 부과된 발화의 예를 살펴보자.

(5) He's the ¹smartest ¹student I ¹know.



(5)의 문장에서는 ‘smartest, student, know’ 등 세 개의 내용어에 문장 강세가 부과된다. (5ㄱ)~(5ㄷ)에서 첫 번째 강세 음절은 악센트를 받아 앞 음절로부터의 고저 상승이 일어나고, (5ㄷ)에서는 앞 음절로부터의 고저 하강이 일어났다. (5ㄱ)~(5ㄷ)의 세 번째 강세 음절은 핵 악센트를 받아 앞 음절로부터의 고저 상승과 음절 내에서의 고저 하강이 일어났다. (5ㄴ)에서는 두 번째 강세 음절이 악센트를 받아 앞 음절로부터의 계단 내림이 일어났으나 (5ㄱ), (5ㄷ), (5ㄷ)에서는 악센트가 부과되지 않아 억양의 변곡점이 두 번째 강세 음절에서 형성되지 않았고, 첫 번째 악센트 음절이 이끄는 수평조, 내림조, 오름조 억양의 일부로 발음되었다. (5ㄱ)의 첫 번째 강세 음절은 악센트를 받아 고저 하강이 일어났고, 마지막 강세 음절은 핵 악센트를 받아 음절 내에서의 고저 오름이 일어났다. (5ㄱ)의 두 번째 강세 음절은 악센트가 부과되지 않아 수평조 머리 억양의 일부로 발음되었다. 이와 같이 문장의 억양에서는 첫 번째 악센트 음절과 마지막 악센트 음절인 핵 악센트 음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강세 음절은 종종 악센트를 받지 않고 머리 억양의 일부로 발음되기도 한다.

머리 억양은 제한적인 억양 의미를 전달한다. (5ㄱ)의 수평조는 중립적인, 혹은 ‘생기 있는’ 태도를 전달하고, (5ㄴ)의 계단내림조는 수평조보다 더 강조된, 신중한 태도를 전달한다. (5ㄷ)의 내림조는 수평조보다 이완된 태도를 전달한다. (5ㄷ)의 오름조는 이어 나오는 내림조 핵 억양과 결합해 ‘감탄/놀람’이나 ‘항의’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5ㄱ)의 낮은 수평조는 이어 나오는 오름조 핵 억양과 결합하여 다소 ‘불만스러운’, ‘투덜대는 듯한’ 의미를 전달한다.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억양구로 발화될 때 억양구 경계는 각 억양구의 핵 억양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한 문장이 둘 이상의 억양구로 발화될 때 두 억양구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억양 흐름의 연결성이 존재한다.

(6) He **ran** to the **station** | and **caught** the **train**.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문장이 두 개의 억양구로 발화될 때 첫 억양구의 끝부분에는 오름조 핵 억양이 없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만약 첫 억양구 끝부분에 내림조 핵 억양이 없다면 첫 억양구를 발화한 후에 둘째 억양구의 내용이 새로 생각나서 발화한 것처럼 들린다.

3. 억양구 경계의 부과

문장이 짧으면 하나의 억양구로 발화할 수 있지만 문장이 길면 하나의 억양구로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둘 이상의 억양구로 나눠서 발화하게 된다. 억양구 경계는 문장의 아무 곳이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문법 경계에 부과해야 한다. 억양구 경계의 부과는 대체로 언어 보편적인 규칙을 따르긴 하지만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적절한 위치에 억양구 경계를 부과해서 발화하는 연습을 하길 권한다. 다음은 억양구 경계가 빈번하게 부과되는 문법 경계들이다.

(7) ㄱ. 절 경계, 특히 절이 길 때

I went to the store to buy groceries | and stopped by the library.

The best thing you can do, | I think, | is to do your best.

ㄴ. 긴 구 경계

I opened the door | in as slow and careful a way as possible.

I gave the book | to the student who was waiting for me.

ㄷ. 주어, 특히 긴 주어 다음

Lionel Messi | is the only two-time Golden Ball winner.

America's Got Talent | is the most entertaining TV show.

ㄹ. 문두 호격 다음

Mary, | I'm waiting for you.

ㄱ. 인용문 앞

She answered, | "I'll meet them."

ㄴ. 문미의 동격 구 앞

This is my sister, | Mary.

I've just seen Harry Kane, | the famous footballer.

ㄷ. 문두 부사어 다음

Unfortunately, | I lost my camera in Europe.

Naturally, | she speaks English like a native speaker.

ㄹ. 어두 도치 구문 다음

On my way to the library, | I met an old friend.

ㅁ. 부가 의문문 안

It's freezing, | isn't it?

(7ㄴ)에서처럼 호격이 문두에 오면 호격 다음에 억양구 경계가 부과되지만 아래의 (8ㄱ)에서처럼 호격이 문미에 오면 억양구 경계가 호격 앞에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7ㄱ)에서처럼 인용문 앞에는 억양구 경계가 부과되지만 (8ㄴ)에서처럼 인용문 뒤에는 억양구 경계가 잘 부과되지 않으며, (7ㄷ)에서처럼 문두 부사어 뒤에는 억양구 경계가 종종 부과되지만 (8ㄷ)에서처럼 문미 부사어 앞에는 억양구 경계가 잘 부과되지 않는다.

(8) ㄱ. Would you mind coming with me, sir?

How are you, Fred?

ㄴ. "Be careful," they shouted.

"Do your best," said the teacher.

ㄷ. I managed to find my wallet, fortunately.

같은 문장이라도 특정 위치에 억양구 경계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9) ㄱ. He washed (l) and brushed his hair.

ㄴ. He speaks English (l) naturally.

ㄷ. There's cheese (l) salad | and pizza.

(9ㄱ)에서 'washed' 뒤에 억양구 경계 없이 발화하면 "그는 머리를 감고 빗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억양구 경계를 부과해서 발음하면 "그는 몸을 씻고 머리를 빗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9ㄴ)에서 'naturally' 앞에 억양구 경계가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경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9ㄷ)에서 'cheese' 뒤에 억양구 경계가 오면 '치즈, 샐러드, 피자'가 있다는 말이고, 경계가 없으면 '치즈 샐러드와 피자'가 있다는 말이다.

4. 초점과 억양

무대에서 조명은 무대 전체를 비추기도 하고 주인공만 비추기도 한다. 언어에서 초점(focus)은 무대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문장 전체, 혹은 대명사 주어를 제외한 문장 전체가 새 정보(given information)여서 초점을 받을 때, 이 문장은 넓은 초점(broad focus)을 받았다고 하고, 문장의 일부만 새 정보여서 초점을 받을 때 새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은 좁은 초점(narrow focus)을 받았다고 한다. 무대에서 조명이 이용해 중요한 부분을 밝혀 주듯이 언어에서는 초점 받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단어에 악센트를 부과한다.

(10) ㄱ. I'm 'planning to 'fly to \Italy.

ㄴ. I'm 'planning to \fly to Italy.

ㄷ. I'm \planning to fly to Italy.

ㄹ. \I'm planning to fly to Italy.

(10ㄱ)의 예처럼 'Italy'에 핵 악센트가 부과되면 'Italy'가 새 정보라

서 초점을 받은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planning to fly'는 새 정보라서 초점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라서 초점의 영역에서 제외되는지 강세와 억양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10ㄴ)처럼 'fly'에 핵 악센트가 부과되면 'Italy'는 주어진 정보로 이해되고, 'fly'는 새 정보라서 초점을 받은 것처럼 들린다. 'planning'은 악센트를 받지만 새 정보일 수도 있고 주어진 정보일 수도 있다. (10ㄷ)처럼 'planning'이 핵 악센트를 받으면 이 단어만 새 정보라서 초점을 받은 것으로 들리고, 'fly to Italy'는 주어진 정보라서 초점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들린다. (10)의 예문에서 'I'는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가 되는데, (10ㄹ)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탈리아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걸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는 대조 강세(contrastive stress)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핵 악센트가 부과된다.

영어에서는 핵 악센트가 초점 영역의 오른쪽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반면 왼쪽 경계는 명확하게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10ㄱ)에서처럼 'planning'과 'fly'는 초점 영역에 포함되든 안 되든 교차 리듬을 형성하기 위해 문장 강세가 부과되고, (10ㄴ)에서처럼 'planning'도 초점 영역에 포함되든 안 되든 문장 강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에 핵 악센트 이후에 나오는 내용어들의 문장 강세는 매우 약화되기 때문에 (10ㄴ)~(10ㄹ)에서처럼 문장 강세를 표기하지 않았다.

(11) A: Would you 'wash the 'dishes please?

B: Would 'I wash the dishes?!

(11)에서 A가 발화한 문장에서는 'wash the dishes'가 새 정보여서 초점을 받고, 초점 오른쪽 경계에 있는 명사 'dishes'가 핵 악센트를 받는다.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에서 'wash the dishes'는 이미 A가 언급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라서 대조 강세를 받는 'I'에 부분 초점이 놓이게 되어 'I'에 핵 악센트를 부과해서 발음해야 자연스럽게 들린다. 만약에 B가 주어진 정보인 'dishes'에 핵 악센트를 부과해 "Would I 'wash the 'dishes?"라고 발화하면 A는 B의 엉뚱한 반응에 어리둥절

해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엉뚱한 곳에 핵 악센트를 부과하면 듣는 사람이 발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핵 악센트 부과는 제대로 배워 활용해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초점 영역의 왼쪽 경계가 음성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오른쪽 경계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핵 악센트 부과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따라서 올바른 위치에 핵 악센트를 부과해서 발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핵 악센트는 어디에 부과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억양구 전체나 대부분이 넓은 초점을 받을 때는 마지막 내용어에 핵 악센트가 부과되고, 억양구의 일부가 부분 초점을 받거나 대조 초점을 받을 때는 초점 받은 단어에 핵 악센트가 부과되는 것이다.

(12) ㄱ. 넓은 초점을 받을 때:

He's the player of the 'year.

Where do you 'come from?

Who were you 'talking to?

ㄴ. 좁은 초점을 받을 때:

A: Who brought the wine?

B: 'Mary brought the wine.

ㄷ. 대조 초점을 받을 때:

A: Is this present from John?

B: It's not 'from him. It's 'for him.

특정 단어가 좁은 초점이나 대조 초점을 받을 때는 문법어라도 핵 악센트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13)의 예에서처럼 단어의 한 음절이 대조 초점을 받아 핵 악센트를 받을 수도 있다.

(13) We can focus on any word to show contrast, 'explicit or 'implicit.

5. 예외적인 핵 악센트 부과

핵 악센트는 억양구 초점 영역의 맨 마지막 내용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점의 영역 안에 있어도 핵 악센트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5.1. 문미 호격

문미에 나오는 호격에는 핵 악센트가 부과되지 않는다.

- (14) Where are you \going, Peter?
I'll introduce you to my \sister, Mary.
See you on \Saturday, Charlie.
May I ^help you, Mr. Lee?

5.2. 사전 문장

사전 문장(event sentence)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술하는 문장을 말하는데, 주어를 포함해 문장 전체가 초점을 받고, 사건을 기술하는 동사가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전 문장의 경우 주어에 핵 악센트가 부과된다.

- (15) The \phone's ringing.
A \taxi is coming.
The \sun's shining.
The \leaves are falling.
The \car won't start.
The \baby's crying.
The \house is on fire.

5.3. 문미의 시간과 장소 부사어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어가 문미에 오면 문장 끝에 나오는 부사나 부사어 안의 명사에는 핵 악센트가 부과되지 않고 부사어에 선행하는 내용에 핵 악센트가 부과된다.

- (16) I'm going \shopping this morning.
He's flying to \London on Friday.
I had some \bread for breakfast.
They're coming to \stay for the weekend.
Let's go \swimming this afternoon.
We're \leaving tomorrow.
There are lots of \cars on the street.

5.4. 문두 wh-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목적어

문두에 wh-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목적어가 올 때는 명사 목적어에 핵 악센트가 부과된다.

- (17) Which ho\tel are you staying in?
Which \color do you prefer?
Which \school do you go to?
What \shirts should I wear?
What \car do you drive?

5.5. 구 동사 안에 삽입된 명사 목적어

구 동사(phrasal verb)가 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가 삽입될 수 없으며, 문미에 나타나면 핵 악센트는 전치사에 부과될 수 없으므로 동사에 부과된다.

(18) What are you \staring at?

Who did you \talk to?

구 동사가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문미에 나타나면 마지막 내용어인 부사에 핵 악센트가 부과된다.

(19) Go a \way!

Calm \down!

The plane was about to take \off.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데, 목적어가 대명사면 부사에 핵 악센트가 부과되지만 보통 명사나 고유 명사면 핵 악센트는 목적어에 부과된다.

(20) Take off your \shoes.

Take them \off.

Take your \shoes off.

5.6. 특정 관용 표현

'in any case, at any rate, by all means, by no means'와 같은 특정 관용 표현들은 마지막 명사에 강세가 부과되지 않고 가운데 단어에 강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억양구 경계 앞에서 핵 악센트가 가운데 단어에 부과된다.

(21) We're leaving tomorrow in \any cas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end them, by \all means.

6. 핵 억양의 부과

위의 (1)~(3)의 예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핵 억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억양 의미를 전달한다. 그런데 핵 억양은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

(22) John: Michael met his friends.

Tim: \Who?

Bob: /Who?

(22)의 예에서 John의 발화에 대해 청자가 "Who?"라고 발화하면 "어느 친구?"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 "누가 친구를 만났다고?"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Tim처럼 내림조 핵 억양을 얹어 발화하면 전자의 의미로 해석되고, Bob처럼 오름조 핵 억양을 얹어 발화하면 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평서문에는 보통 내림조 핵 억양이 부과된다.

(23) That's very \interesting.

I don't be \lieve it.

그런데 젊은이들은(특히 캘리포니아 출신) 매우 자주 평서문을 오름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끝 올림(uptalk)이라 한다.

(24) That's very /interesting.

I don't be /lieve it.

평서문에 내리오름조 핵 억양이 없기도 하는데, 이때는 화자의 발화에 뭔가 반대되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5ㄱ)은 평서문에 내리오름조가 없혀 화자의 함의가 전달된다. 내리오름조는 (25ㄴ)에서

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사용된다.

- (25) ㄱ. That's very ex[∨]pensive. (So I won't buy it.)
I'll submit my essay on [∨]Tuesday. (But not on Monday.)
ㄴ. That's not very [∨]nice.

의문문 중에서 예-아니오 의문문에는 보통 오름조 핵 억양을 얹어 발음한다.

- (26) Do you like [∨]football?
Did you get my [∨]message?

되물음 의문문의 경우에도 오름조 핵 억양을 사용한다.

- (27) [∨]Sorry?
[∨]How long?
You know [∨]what?

부가 의문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을 확신하면 내림조 핵 억양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름조 핵 억양을 사용한다.

- (28) You're a good singer, [∨]aren't you?
You're a good singer, [∨]aren't you?

선택 의문문의 경우 'or'의 앞 단어에는 오름조 핵 억양이 사용되고, 뒤 단어에는 내림조 핵 억양이 사용된다.

- (29)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ve in [∨]Seoul, or in another [∨]city?

반면에 의문사 의문문에는 보통 내림조 핵 억양이 사용된다.

- (30) What's your [∨]name?
When's your [∨]birthday?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에도 내림조 핵 억양이 주로 사용된다.

- (31) ㄱ. Let's go to the [∨]beach.
ㄴ. Be [∨]quiet!
ㄷ. How de[∨]licious!
What a lovely [∨]day!
It's awfully [∨]cold!

찾아보기

cot-caught 합류	54	단기 기억	88	비강 접근	62	오름조	91	좁은 초점	97
MRI 단면도	28	단모음	45	비강 통로	28	울림선	28	좁힘	23
r-음색 모음	56	단모음화	57	비강세 모음	27	원순 모음	44	주강세	76
갑상 연골	19	단순 모음	44	비원순 모음	44	원순 자음	36	주어진 정보	98
강박자	85	단어 강세	76	비음	22	윳니	19	중고모음	17
강세	76	대조 강세	70	사건 문장	100	윳입술	19	중설 모음	18
강세 규칙	77	동화	63	새 정보	97	윳잇몸	19	중양 모음	18
강세 모음	27	등시성	86	설측 개방	62	유기음	27	중저모음	44
강세 시간 리듬	87	리듬	85	설측 접근	62	유성음	24	중화	30
강세 이동	81	리듬 기능	76	설측음	17	유음	22	초점	97
강세 충돌	81	리듬 단위	88	성대	19	울격	86	축약형	71
강약형	87	리듬 패턴	85	성대 진동	24	융합	73	치음	23
강형	64	리듬구	88	성문	19	음보	86	치조음	23
개방	27	마찰음	22	성문 마찰음	35	음절 꼬리	39	탄설음	30
경구개	19	막음	27	성문 파열음	30	음절 머리	33	탄설음화	61
경구개음	23	말의 가락	90	성문음	23	이중 모음	44	터짐선	28
경구개 치조음	23	머리 억양	92	성절 자음	30	입술 모양	36	파열음	22
경음	27	모음 공간	12	수평조	94	자음 동화	73	파찰음	22
계단 내림	94	모음 사각도	44	순치음	23	자음 체계	25	피열 연골	19
고모음	14	모음 영역	12	스펙트로그램	28	자음 탈락	73	한글 풀어쓰기 폰트	16
고저 악센트	92	모음화된 /l/	39	악센트	92	자음군	60	한글재민체연구회	16
교차 리듬	76	목짖	19	앞머리 억양	92	작업 기억	88	핵 악센트	93
구 강세	82	무기음	27	약강형	86	장기 기억	88	핵 억양	92
구 동사	101	강세	76	약모음	45	장모음	17	혀 높이	44
국제 영어	20	무성음	24	약박자	85	장애음	25	혀 위치	44
국제음성기호	15	문법어	82	약형	64	장음 기호	17	혀끝	19
국제음성학회	15	문장 강세	82	양순음	23	저모음	44	혀뿌리	19
권설 /r/	37	뭉친 /r/	37	어두운 [h]	38	전설	19	혓날	19
기	27	미국 영어	20	억양	90	전설 모음	44	혓몸	19
기능 부담량	76	반모음	22	억양 패턴	90	접근	27	후설	19
끝 울림	103	발음 교정	13	억양구	87	제2강세	76	후설 모음	44
내리오름조	91	발음 기호	15	억양구 경계	88	제3강세	76	후치조음	23
내림 이중 모음	55	밝은 [i]	38	연구개	19	제4강세	77	휴지	87
내림조	91	범주화	12	연구개음	23	조음 기관	18		
내용어	82	변별 기능	76	연음	27	조음 방법	22		
넓은 초점	97	복합어 강세	80	영국 영어	20	조음 자리	23		
높낮이	90	비강 개방	62	영어 리듬	71	조음점	23		

참고문헌

- Avery, P. and Ehrlich, 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est, C. T. (1995). A direct realist view of cross-language speech perception. In W. Strange (ed.),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pp. 171-206). York Press.
- Bradford, B. (1988). *Intonation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zil, D., Coulthard, M. and Johns, C. (1980). *Discourse intonation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 Brazil, D. (1994). *Pronunciation for advanced learners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A. (2021). *Activities and exercises for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Routledge.
- Carley, P. and Mees, I. (2019). *American English phonetics and pronunciation practice*. Routledge.
- Celce-Murcia, M., Brinton, D. and Goodwin, J. (1996). *Teaching pronunciation: A reference for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and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 Collins, B. and Mees, I. M. (2003). *Practical phonetics and phonology: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Routledge.
- Couper-kuhlen, E. (1986). *An introduction to English prosody*. Edward Arnold.
- Cruttenden, A. (1986). *Into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ttenden, A. (1994). *Gimson's pronunciation of English*. 5th Edition. Edward Arnold.
- Flege, J. E., Yeni-Komshian, G. H. and Liu, S. (1999). Age constraints on second-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1(1), 78-104.
- Fuchs, S. and Birkholz, P. (2019). Phonetics of consonants. In J. Fernández-Domínguez and M. Aronoff (eds.),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pp. 1-24). Ox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J. (2005). *Clear speech: Pronunciat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n North American English*.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cock, M. (1995). *Pronunciation g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cock, M. (2003). *English pronunciation in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wings, M. (1993). *Pronunciation tas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wings, M. (2004). *Pronunciation practice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D. (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ition. Heffer.
- Kelly, G. (2000). *How to teach pronunciation*. Longman.
- Kenworthy, J. (1987).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gman.
- Kingdon, R. (1958). *The groundwork of English stress*. Longmans, Green and Co.
- Kreidler, C. W. (2004).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A course book in phonology*. 2nd Edition. Blackwell.
- Labov, W., Sharon, A. and Boberg, C. (2005). *The atlas of north American English: Phonetics, phonology, and sound change*. De Gruyter Mouton.
- Ladefoged, P. (1999). American English. In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pp. 41-4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 Y. (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Levis, J. M. (2018). *Intelligibility, oral communication, and the teaching of pronunci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dsey, G. (2019). *English after RP: Standard British pronunciation today*. Springer.
- Mayers, R. P. (1981). A new approach to the teaching of weak form. *ELT Journal*, 35(1), 421-426.
- O'Connor, J. D. (1967). *Better English pronunciation*. Longman.
- O'Connor, J. D. and Arnold, G. F. (1973). *Intonation of colloquial English*. 2nd Edition. Longman.
- O'Connor, J. D. and Fletcher, C. (1989). *Sounds English: A pronunciation practice book*. Longman.
- Pennington, M. C. and Rogerson-Revell, P. (2019).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and research*. London: Palgrave Macmillan.
- Prator, C. H. (1951).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for adult foreign stud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eed, M. and Levis, J. M. (2019). *The handbook of English pronunciation*. John Wiley & Sons.
- Roach, P. (2000).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A practical course*.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gerson-Revell, P. (2011). *English phonology and pronunciation teaching*.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Seidlhofer, B. (2001). Pronunciation. In R. Carter and D. Nunan (eds.), *The Cambridge guide to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pp. 56-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L. (1993). *Pronunciation in action*. Prentice Hall.
- Upton, C. and Kretzschmar Jr, W. A. (2017). *The Routledge dictionary of pronunciation for current English*. Taylor & Francis.
- Vaux, B. and Golder, S. (2003). *The Harvard dialect survey*. Harvard University Linguistics Department. <http://dialect.redlog.net/>
- Wells, J. C. (1982). *Accents of English: Volume 1, 2,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s, J. C. (2006). *English intonation: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s, J. C. (2014). *Sounds interes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s, J. C. (2000). *Longman pronunciation dictionary*. 2nd Edition. Longman.
- Zhou, X., Espy-Wilson, C. Y., Tiede, M. and Boyce, S. (2007). An articulatory and acoustic study of “retroflex” and “bunched” American English rhotic sound based on MRI. In *Proceedings of INTERSPEECH 2007* (pp. 54-57).
- 김미애·김민 (2023). A Research on Hangul Morphology for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 focus on the design of New Hangul Syllabic -. *한국기초조형학회*, 24(4), 19-23.
- 박미경·손선아 (2015). A study of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언어연구*, 31(2), 313-336.
- <http://americanphonetics.ruhosting.nl/>
- <https://www.youtube.com/@DrGeoffLindsey>
- <https://www.youtube.com/@SanDiegoVoiceandAccent>
- <https://sail.usc.edu/span/>
- <https://www.seeingspeech.ac.uk/>
- <https://www.youtube.com/shorts/lhziyplYT94>
- <https://www.wordfrequency.info>

부록

한글재민체 5.0 (풀어쓰기 정음체)¹⁾

풀어쓰기 정음체 자음 94자

출자음	18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겹자음	11자	ㄱㄱ ㄴㄴ ㄷㄷ ㄹㄹ ㅁㅁ ㅂㅂ ㅅㅅ ㅈㅈ ㅊㅊ ㅋㅋ ㆁㆁ
쌍자음	6자	ㄷㄷ ㄹㄹ ㄹㄹ ㄹㄹ ㄹㄹ ㄹㄹ
겹모음형 자음	5자	ㅅ ㅅ ㅅ ㅅ ㅅ
삿갓	4자	ㄱ ㄴ ㅁ ㄷ
상투	9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꼬리	3자	ㅅ ㅅ ㅎ
찬방울	13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빈방울	17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조합	8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풀어쓰기 정음체 모음 30자

기본 모음	15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ㅜ ㅟ ㅠ ㅡ ㅢ
추가 모음	15자	ㅜ ㅟ ㅠ ㅡ ㅢ ㅜ ㅟ ㅠ ㅡ ㅢ ㅜ ㅟ ㅠ ㅡ ㅢ

풀어쓰기 정음체 라틴, 숫자 62자

라틴대문자	26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라틴소문자	26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숫자	10자	0 1 2 3 4 5 6 7 8 9

풀어쓰기 정음체 기호 40자

기호	40자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풀어쓰기 정음체 성조, 첨자, 장음 10자

성조	4자	◦ ◦ ◦ ◦
첨자	5자	◦ ◦ ◦ ◦ ◦
장음	1자	ː

1) 김미애 · 김민(2023)

부록

풀어쓰기 정음체 IPA 자음

	양순음 Bilabial		순치음 Labiodental		치음 Dental		치조음 Alveolar		경구개치조음 Postalveolar	
파열음 Plosive	p	b					t	d		
	ㅍ	ㅂ					ㅌ	ㄷ		
마찰음 Fricative	ɸ	β	f	v	θ	ð	s	z	ʃ	ʒ
	ㅍ	ㅂ	ㅍ	ㅂ	ㅌ	ㄷ	ㅅ	ㅆ	ㅈ	ㅊ
파찰음 Affricative							ts	dz	tʃ	dʒ
							ㅌ	ㄷ	ㅈ	ㅊ
비음 Nasal		m		ɱ				n		
		ㅁ		ㅂ				ㄴ		
전동음 Trill		ʙ						r		
		ㄷ						ㄹ		
탄설음 Tap or Flap				ɹ̥				ɾ		
				ㄷ				ㄹ		
설측마찰음 Lateral fricative					ɬ			ɮ		
					ㄹ			ㄹ		
접근음 Approximant		w		ʋ				ɹ		
		ㅎ		ㅂ				ㄹ		
설측접근음 Lateral approximant								l		
								ㄹ		
흡착음 click	ɔ̥				ǀ		ǃ	ǂ		
	ㅍ				ㄷ		ㄹ	ㄹ		
방출음 Ejective	pʰ						tʰ	sʰ		
	ㅍ						ㅌ	ㅅ		
내파음 Voiced implosive		ɓ						ɗ		
		ㅂ						ㄷ		

Other Symbols ㅁ : ㅍ ɸ : ㅅ ɬ : ㅈ ɮ : ㅊ ʎ : ㅎ ɹ̥ : ㅎ ʎ : ㅎ ɹ̥ : ㅎ ɹ̥ : ㅎ ɹ̥ : ㅎ ɹ̥ : ㅎ

권설음 Retroflex		경구개음 Palatal		연구개음 Velar		목젖음 Uvular		인두음 Pharyngeal		성문음 Glottal	
ɻ	ɻ	ç	ʝ	k	g	q	ɢ			ʔ	
ㄹ	ㄹ	ㄷ	ㄷ	ㄷ	ㄷ	ㄷ	ㄷ			ㅎ	
ʂ	ʂ	ç	ʝ	x	ɣ	χ	ʁ	ħ	ʕ	h	ɦ
ㅅ	ㅅ	ㅅ	ㅅ	ㅋ	ㄱ	ㅋ	ㄱ	ㅇ	ㅇ	ㅎ	ㅎ
tʂ	tʂ	tɕ	tɕ								
ㄷ	ㄷ	ㄷ	ㄷ								
	ㄹ		ㄹ		ㄱ		ㄱ				
	ㄹ		ㄹ		ㅇ		ㅇ				
							ㄱ				
	ㄹ										
	ㄹ	j	ɥ		ɰ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ɰ									
						kʰ					
						ㄷ					
						f		ɣ		ɢ	
						ㅅ		ㄱ		ㄷ	

부록

풀어쓰기 정음체 IPA 모음

i	y	i/ʏ	ɯ	u
ㅣ	ㅟ	ㅣ/ㅜ	ㅡ	ㅛ
ɪ	ʏ	ə/ɐ		ʊ
!	ㅓ	ㅕ/ㅗ		ㅜ
e	ø	ɔ	ɤ	o
ㅕ	ㅛ	·	ㅛ	ㅜ
ɛ	œ	ɜ/ɞ	ʌ	ɔ
ㅕ	ㅛ	ㅕ/ㅗ	ㅓ	ㅜ
æ		ɐ		
ㅕ		ㅓ		
a	æ		ɑ	ɒ
ㅓ	ㅛ		ㅓ	ㅜ

한글재민체연구회 홈페이지(<http://hangeuljaemin.kr>)에서 이 책의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본문에서 사용된 예문의 음성 파일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책명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초판 1쇄 발행 2023년 10월 9일

지은이 이호영 Lee Ho-Young

펴낸이 박재갑

편집인 김미애

디자인 김미애

프린팅 가나CNP

펴낸곳 한글재민체연구회

등록 제2022-000176호(2022년 9월 2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4길 30, 501동 1401호

전화 02-766-8080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 한글재민체연구회

* 출판은 대신송촌문화재단과 재단법인 고산장학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980056-3-2(PDF)